

濟州島의 生業俗談 研究*

高 在 奐

〈 目 次 〉

I. 序 言	1. 農畜俗談
II. 形成背景	(1) 素 材
1. 自然的 側面	(2) 內 容
(1) 孤立과 瘠薄	(3) 主 題
(2) 天險과 三災	2. 潛漁俗談
2. 生業的 側面	(1) 素 材
(1) 農畜과 狩獵	(2) 內 容
(2) 潛漁와 鹽業	(3) 主 題
III. 生業俗談의 樣相	IV. 結 言

I. 序 言

제주도 속담 가운데서 생업속담에 해당하는 農畜俗談과 潛漁俗談은 제주도민의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속담 전반에 걸친 학적체계를 시도한 「濟州島俗談研究」에서 그 윤곽이 대충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은 1985년 하반기까지 採錄選別된 550편 중 농축속담 60여편과 잠어속담 40여편 등 100여편을 자료로 한 것이다. 그러나 本稿는 1986년도부터 1989년 1월까지 새로 채록된 110여편을 더 추가시킨 211편을 자료로 했으므로 「濟州島俗談研究」의 '職能'부분에서 밝힌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생업속담에 대한 형성배경을 밝히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본래 속담이란 삶의 과정에서 體得한 생활상의 굴절이 生活訓으로 口傳된 것인 만큼 강한 通俗性과 전파력을 갖는 것이 통례다. 20세기 현대산업사회로 전환되기까지는 생업에 의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혁이 없었고, 실령 있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생업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농촌에서는 농사일에 부대끼며 가축을 기르고 어촌에서는 어로활동과 해산물 채취에 전념해야만 가정경제에 숨통이 트였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속담은 자생력을 갖고 실생활과 밀착되어

* 본 논문은 1986학년도 문교부의 자유과제응모 학술연구비 조성에 따른 연구임.

1) 拙稿,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6.

자칫 범하기 쉬운 잘못에 대한 제동장치로서의 교시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생업속담을 통한 선인들의 생업양상뿐만 아니라 시대에 대응해 온 의식세계와 생활습관을 되비쳐 볼 수 있는 전통적 고유 民俗語 내지 通俗語로서의 重厚性을 띠고 있다는 말이다.

종래의 국학연구가 중앙중심에서 점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총체적 측면에서 향토학의 연구와 集成이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향토학의 발전은 국학을 풍요롭게 한다. 향토학은 국학의 枝葉의 亞流라기보다 오히려 국학을 형성하는 構成因子인 동시에 脈點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도 향토속담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속담학에서 생업속담에 대한 이렇다 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차에 제시한 대로 그 실상을 고찰해 본다는 것은 한국속담의 영역을 확장하고 보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원래 계획대로 호남지방의 생업속담과 비교가 이뤄졌더라면 그 位相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겠지만 자료의 확보와 對比에 따른 현지답사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여건의 미비로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不敏의 소치로 돌릴 수 밖에 없다.

II. 形成背景

무엇이든지 그것이 형성된 이면에는 과정과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俗談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예지가 명쾌하게 집약되어 만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通俗的 警句로 이루어진 만큼, 그 형성배경은 선인들의 의식세계와 생활상이 반영되고 있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구나 제주도의 속담은 韓本土인 內陸과 멀리 떨어져 있는 絕海孤島의 풍토적인 習俗과 生業활동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들 특수여건들이 어떻게 제주도 속담, 특히 생업속담의 형성배경으로 작용했는지를, 자연적 측면과 생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따른 문헌기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것만 부분별로 인용하거나 그 실상을 보여주는 속담을 예시하면서 해설을 덧붙였다. 그래도 미처 손이 닿지 못한 사항은 生業別 속담을 논한 Ⅲ장에서 보완될 것으로 본다.

1. 自然的 側面

제주도의 자연적 환경여건은 環海天險의 劣惡한 고장으로 집약된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내륙지방과 격리된 섬으로서의 孤立性和 농토의 瘠薄性, 태풍우의 통로인 惡天候의 天災之變을 꼽을 수 있다. 宦官墨客들에게는 제주도의 천연적 환경과 生態界가 낭만과 미적 감흥을 돋구는 玩賞의 차원의 瀛洲十景²⁾도 될 수 있었지만, 8·15광복 직후까지만 해도 절대다수의

2) 瀛洲는 濟州의 別稱이며 十景은 열개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한다.

즉, 鹿潭晚雪, 靈室奇岩, 瀛邱春花, 紗峰落照, 山浦釣魚, 古戴牧馬, 城山日出, 正房瀑布, 橋林秋色, 山房窟寺

농어민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오직 생존공간으로 의식될 뿐이다. 山野는 일궈야 할 작업장이었고 사방에서 밀려오는 파돏소리는 아리게 휘감기는 채찍으로 삼아야 했다. 지금처럼 그 특유의 風光이 각광 받는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케 한 특색 있는 자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해마다 지어놓은 농작물이 악천후를 만나고 나면 饑饉과 질병에 겹쳐 조정의 구제를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海路가 험탄하여 시일이 걸리는데다가 漂沒의 위험까지 무릅써야 하는 고충이 뒤따랐다.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인력이 한계를 체득하는 자연과의 도전이었다. 그 결과 나타난 사고방식과 習俗은 제주도 고유의 생업문화이자 土俗文化 즉 鄕土文化를 빚어낸 원천이 된 것이다. 속담은 이러한 맥락이 고리가 되어 생활에 대응한 口述들이 점차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강한 전파력을 타고 오늘에 이어지게 된 것이다.

1) 孤立과 瘠薄

예나 지금이나 섬지방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 가운데 하나로 입지적 환경에서 오는 교통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公私의 업무연락은 물론 자급자족이 여의치 못한 생활필수품의 교역에 있어서도 船舶을 이용한 해상운행이 유일한 수단이다. 내륙과 근거리에는 연안도서지방과는 달리 100km가 훨씬 넘는 망망대해를 건넌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1800년대인 19세기까지만 하여도 내륙지방과의 왕래는 노를 짓는 帆船이었는데, 일기를 잘 택하여 조류를 이용해야 2일 정도였다. 일기를 잘못 만나면 도중에 죽을 고생을 겪게 된다.

문헌에 나타난 海上公路로서의 船着地는 金羅南道 康津과 海南인데 여기서 제주도까지 기일이 명시된 항해기록을 살펴보면, 太宗6년(1406) 6월에 朴謨와 金道生이 서울을 떠나 法華寺에 있는 銅佛像 三軀를 싣고 海南縣에 도착한 것이 17일이 소요됐다³⁾. 그것도 빨리 운반되었다고 하여 상을 내렸고, 宣祖10년(1577) 白湖 林梯가 4개월 간의 제주도 방문노정을 기록한 「南溟小乘」에 의하면 康津 南塘浦에서 배를 타고 莞島와 白島를 거쳐 朝天館에 도착하기까지 4일간이 소요되고 있다. 御使의 책부를 떠고 제주도 巡行 6개월 간의 전말을 기록한 金尙憲의 「南槎錄」에는 宣祖34년(1601) 8월 13일 서울을 출발 9월 1일 康津에 도착한 후 항해할 일기가 못돼 20일 간 머물다가 9월21일에야 배를 띄워 다음 날 22일 涯月防護所에 도착했는데 풍랑으로 수행한 10척의 배 가운데 2척뿐이라고 적고 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풍랑에 의한 漂沒의 사고다. 제주의 원주민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 州胡人 시대에 내륙지방과 교역이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는 더 그 횡수가 증가되었다고 보겠는데, 고려 肅宗2년(1097) 6월에 풍랑으로 남방의 裸國에 표류했던 탐라인 20명 중 子信 등 3명이 宋나라로 탈출하여 머물다가 귀환했고, 2년 후인 1099년 7월에도 趙暹

3) 濟州文化放送, 「耽羅錄」, 1986, p. 30.

등 6명이 귀환했는가 하면, 高宗16년(1299) 2월에 梁用才 등 28명이 宋으로부터 돌아왔고 동왕 31년(1244) 2월 일본의 상선이 태풍으로 탐라해협에서 파선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표류지별로 보면 世宗25년(1443)부터 顯宗4년(1838)까지 중국에 표류한 제주도인이 286명, 世祖3년(1457)부터 英祖46년(1770)까지 유구에 표류한 제주도인이 45명, 世宗25년(1443)부터 純祖15년(1815)까지 일본에 표류한 제주도인이 68명 등 무려 399명에 이르고 있다⁵⁾.

이것만 보더라도 제주도 부근의 해로가 몹시 험난하여 표물의 심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늘날 時速 평균 17노트로 왕래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면 태풍경보가 내리지 않은 한 웬만한 풍랑은 아롱곳 없이 木浦는 5시간 반, 釜山도 11시간이면 도착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된다.

1985년 9월 濟州新聞社 創刊40周年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古代海路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옛날의 원형을 재현해 만든 '테우(물마루호라 명명)'로 제주시 禾北浦를 출발 3인씩 짝을 지어 교대로 노를 저어 康津 馬良浦에 도착하는데 꼬박 6박7일(9월4일~9월10일)이 걸렸다. 직경거리는 70해리이지만 조류를 잘 타야 하므로 82해리(152km)를 항해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미뤄 보더라도 바다 건너 내륙지방을 왕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에 부쳤는지 알고도 남는다. 다시 말하면 絶海孤島로서의 내륙을 향한 단절의 극복을 위해서는 死活이 걸린 항해의 모험을 강행할 수 밖에 없던 것이 제주도민의 立地의 여건이었다.

또한 地表面의 황폐와 토질의 瘠薄性은 앞에 든 고립과 단절에 못지않게 생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주도의 생성과정이나 인류의 토착은 별개로 치고 住居의 공간이 되는 地盤을 보면 현무암층과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다. 평야보다는 고르지 못한 목야지가 주종을 이루었고 지면이 바다로 기울고 있어 우량은 풍족하지만 곧바로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거기에다 漏水현상까지 겹쳐 땅 위에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짧다. 그러니 땅은 자연히 매마르고 거칠어 한 뼘의 농토라도 더 일구고 가꿀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 도민들의 노고는 배가될 수 밖에 없다.

요즘에 와서도 돌보이는 현상이지만, 三多(石多, 風多, 女多)중의 '돌'은 빼놓을 수 없는 풍물이다. 제주도의 재래문화중 농경문화의 표본적 역할을 대변하는 研子磨와 맷돌(磨石)을 비롯하여 築牆에 활용된 돌의 존재는 문화인류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 日本東京大泉靖一 교수의 제주도에 대한 현지답사보고서(1965)을 토대로 한 제주도 사회의 인류학적 연구에서 혈연관계가 돌질구(礪磨)문화권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은 돌의 활용을 심도 있게 고찰한 것으로 주목된다. 반면 사방에 널려 있는 돌맹이는 농토를 잠식하는 장애물이 되었고 심하면 밭의 밑바닥이나 위에 돌출되어 경작에 큰 지장을 주었다. 근간 耨農의 기계화를 맞았지만 일부 후미진 농경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에는 여전히 재래식 쟁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4)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p. 45.

5) 김봉옥, 前掲書, pp. 116~119.

암반과 돌출된 돌부리가 기계사용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들 밭에 대한 명칭도 '빌레왓·설케왓·작지왓·돌주진왓'⁶⁾ 등 지금도 俗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렇듯 지표나 지질이 거칠고 척박한 것은 지각변동에 따른 火山島로서의 용암분출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1세기초까지 화산활동이 전개된 것은 그를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고려 穆宗5년(1002) 탐라산에 4개의 구멍으로 赤水가 용출하여 5일만에 끊겨 瓦石이 되었다고 했고⁷⁾, 5년 후인 1007년에도 탐라의 海中에 산이 솟아났는데 그때 七晝夜에 걸쳐 진동이 일고 연기와 석유황같은 것이 땅을 덮어 사람들이 두려워하므로 태학박사 田拱之가 왕의 명을 받고 탐사 끝에 그 형상을 그려 돌아갔다⁸⁾. 또 조선 端宗2년(1454)에도 지진으로 담과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이 많이 壓死했다고⁹⁾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입지적 여건에서 오는 고립성과 토양의 척박성은 생업과 생계문제에 직결되므로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였음이 俗談採錄 과정을 통해서나 정리하는 가운데 역역히 드러나고 있다.

㉠ 뱃길, 애깃길

(뱃길, 애깃길.)

㉡ 집은 상 살곡, 배랑 짓엉 타라.

(집은 사서 살고, 배는 지어서 타라.)

㉢ 집 치레 말앙 밧 치레 흥라.

(집 치레 말고 밧 치레하라.)

㉣ 돌도 팔람시민 고망난다.

(돌도 뚫고 있으면 구멍난다.)

㉠의 속담은 항해의 위험성과 출산의 위험성을 동일시한 말이다. 바다를 건널 때 예상하지 않은 침몰의 위기의식과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겨야 하는 어린애의 출산은 꼭 같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의 경우는 선박의 견고성과 신뢰도를 강조한 것이다. 집은 웬만하면 한 세대를 무난히 살고도 남음으로 손수 짓노라고 수고하느니보다 차라리 남의 지은 것을 사서 사는 편이 좋다고

6) '빌레왓'과 '설케왓'은 암반이 많이 깔려져 있는 밭을 뜻하고 '작지왓'은 돌멩이가 많이 흩어져 있는 밭이며 '돌주진왓'은 지면에 돌출된 암석이 조밀하게 놓여져 있는 밭을 말한다.

7) 金錫翼, 『耽羅記年』,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 348. '穆宗五年夏六月 耽羅山開四孔 赤水湧出五日而止 其水皆成瓦石'.

8) 金錫翼, 前掲書, p. 349. '穆宗十年 瑞山湧出 東海中 山之始出也雲霧晦冥 地動如雷 凡七晝夜 始開 霧山高可百餘丈 周圍可四十餘里 無草木 烟氣羃其上 望之如石硫黃 人恐懼不敢近 王遣太學博士 田拱之來視之 拱之躬至山下 圖其形以去'

9) 濟州文化放送, 前掲書, p. 153

보았다. 그러나 배만은 직접 제 손으로 만들어서 탈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래야 험한 풍랑에 부대껴도 마음을 놓을 수 있으므로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만들어야만이 미덥고 실속도 있다고 여기는 실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㉔은 주택보다 식량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서러움 중에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크다고 했듯이 衣食住 중에 최우선 과제가 식생활의 해결이다. 그 식생활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주택인 집보다는 곡식을 생산해내는 밭이다. 농토의 척박성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땅이 척박할수록 더 공들여 일구고 가꾸거나 옥토를 확보해야 실속 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

㉕에서는 돌에 대응한 島民意識이 반영되고 있다. 가는 곳마다 발부리에 채일 정도로 도처에 산재돼 있는 돌은 생활용구로 다듬어 씌으로써 돌의 문화를 창출해낸 것도 특기할 일이지만, 역으로 농부의 손마디를 으깨고 멧들게 하는 처치난의 제거대상 제일호였다. 強硬性에 맞서 끈질기게 대결하는 가운데 뜻대로 변신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정진할 때 이뤄낼 수 있다는 것 등은 그 한 예가 된다.

2) 天險과 三災

제주도는 남한 제일의 고봉인 한라산을 중앙에 두고 山南山北으로 구분돼 있어 우량과 기온면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후는 내륙에 상응하는 온대로서 高溫多濕하다. 그러면서도 유별난 것은 평소에도 비교적 거센 바람이 부는 날이 많은 편이고 여름철로 접어들면 북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초속 17m 이상으로 이동하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의 통로라는 점이다. 이 태풍은 폭우를 동반함으로써 그 피해가 막심하다.

제주도 지역의 태풍에 관한 연구¹⁰⁾에 따르면 1923년부터 1985년까지 62년간의 태풍수는 138회로 1년 평균 2.2나 된다. 그 來襲시기로는 5월에서 10월 사이인데 7, 8, 9월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태풍이 전연 없던 해는 5번('42, '47, '49, '75, '80)에 불과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농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풍우의 내습은 시기적으로 볼 때 생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된다. 농작물 뿐만 아니라 放牧 중인 牛馬나 作居에도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天災之變이었다. 여기에 가뭄마저 겹치면 食水難과 함께 기근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에 대한 실상을 다 적을 수는 없고 그 斷面的 제시로서 朝鮮王朝實錄을 대상으로 맨 처음 드러난 것을 발췌해 보면, 太宗8년 8월 甲午에 “제주에 큰 비가 내려 물이 제주성에 들어와 官舍, 民家, 禾穀 태반이 표몰되거나 침수되었다”¹¹⁾ 하였고, 같은 해 10월 庚寅에는 “...제주의 飢民을 賑恤하라 명하였다. 제주 都安撫使가 아뢰기를 금년에 고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10) 姜相培, '濟州島地域의 颱風에 關한 研究', 「論文集」 제18집, 濟州教育大學, 1988, pp. 12~13.

11) 濟州文化放送, 前掲書, p. 36.

소와 말을 잡아 양식으로 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¹²⁾라고 한 것은 태풍과 폭우의 災禍가 컸음을 뜻한다.

또 이에 맞서는 가뭄의 災害도 심했다. 평상시에도 샘이 적고 물이 귀해서 음료수는 대부분 봉천수나 웅덩이를 파서 비울 때 고인 물을 이용했다. 그러다 가뭄이 들면 큰 곤혹을 치른다. 어떤 때는 6개월 간이나 가뭄이 계속되어 民生苦를 부추겼다. 「耽羅紀年」의 肅宗40년(1714)을 보면, 2월부터 7월까지 가뭄었고 8월에는 태풍까지 있었는데 肅宗實錄에도 이 사실이 기재된 바, 이때 큰 기근으로 백성은 우마를 도살하여 연명했고, 우마도 목말라 죽었다고 했으니 旱災의 피해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생계의 천적인 天險의 三災는 극심한 기근을 초래시켰고 그럴 때마다 조정에서 베푸는 救恤로 연명하기가 일쑤였다. 이와 관련된 사실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正祖때 名相 蔡濟恭의 樊巖集에 소개된 ‘萬德傳’의 주인공인 內醫女 金萬德의 救恤談이다. 正祖18년(1794)8월에 큰 비바람과 海水로 백곡이 절종되고 굶주려 죽는 자가 많았다. 이때 제주목사 李禹鉉은 조정에 청해서 移轉米 12,000석, 白米 1,345석, 租 2,275석, 麥 6,555석을 17척의 배에 싣고 와서 賑恤했고, 李목사 자신의 비축곡 316석을 더 보태었다. 이듬해로 계속 기근이 겹쳐 內帑錢 15,000양을 租로 바꿔 진휼했고 李목사 역시 自備穀 1,430석을 풀어 진휼했으나 연이은 흉년으로 戶口가 줄어들게 되므로 李목사는 坐謫되었다. 이때 金萬德은 본시 良家에서 태어났지만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해 敎坊생활을 거치게 되는데 그간 어렵게 모은 재산을 털어 내륙지방에서 곡식을 사들여 飢民구제에 공헌했다. 그 소식을 접한 正祖는 일시 內醫女로 삼고 그의 소원인 謁現과 金강산 구경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귀환시켰다.¹³⁾ 바로 이 사실이 그대로 ‘萬德傳’으로 작품화되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데, 1977년 1월에는 제주시 紗羅峰 남쪽 기슭에 기념관과 탑이 세워졌고, 그후 제주도민의 문화축전인 한라문화제 행사의 하나로써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여성을 선정해서 ‘萬德賞’을 내려 표창함으로써 그 공을 추모하고 있다.

어쨌든 앞에서 열거한 天險의 三災之變인 風災·水災·旱災는 고립과 척박의 입지적 여건과 함께 자연적 측면에서의 생업에 연관된 제주도 속담의 외적인 형성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들 실상의 반영된 것을 몇 편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 가마귀새끼 하나만 고물곡, 셋이면 수이진다.
(가마귀새끼 하나면 가물고, 셋이면 홍수진다.)
- ㉡ 보름코지 농서 그리친다.
(바람받이 농사 그리친다.)

12) 濟州文化放送, 前掲書, p. 37.

13) 金錫翼, 前掲書, pp. 421~422.

㉔ 가뭄엔 말오줌도 먹나.

(가뭄에는 말오줌도 먹는다.)

㉕ 말뚱도 참기름 불량 구면 먹나

(말뚱도 참기름 발라서 구면 먹는다.)

㉑은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수긍할 수 없는 비과학적 판단이다. 하지만 옛분들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土俗的 事物觀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상례다. 여기서 하나는 數値는 최소한의 충족치로서 보전적 차원을 암시하고 있고, 셋은 어느 하나가 존속하기 위한 소멸을 전제로 한 것이다. 野生物은 자연의 섭리를 감지하는 생리를 타고났으므로 그에 따른 대응 기능의 뛰어난다. 새끼 세 마리를 갓다는 것은 태풍우가 가뭄보다 훨씬 위협적인 데서 살아남을 확률을 고려한 발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㉒은 말 그대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밭, 즉 태풍이 잘 통하는 길목에 있는 밭은 농작물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같은 지경에 위치해 있지만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보면 유별나게 다른 밭보다 피해가 큰 경우가 있다. 이런 밭은 수확량이 적을뿐 아니라 매매가 이뤄질 때로 약점이 되어 값을 덜 준다.

㉓처럼 말오줌을 먹어야 할 정도면 얼마나 가뭄에 시달렸을까는 상상하고도 남는다.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가뭄에 목장에 방목중인 우마를 찾아 해마다 목이 마르면 돌출에 말오줌이 섞여 내용까지 핏기는 갈빛의 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처럼 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목장의 시설은 엄두도 못냈다.

㉔은 궁극적으로 생활의 困窮狀을 드러내고 있다. 옛날 빈곤한 생활은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었지만, 그 어느 지방에 비해 제주도의 天險인 三災는 糊口之策을 거듭나게 할 뿐이었다. 오죽해야 말뚱도 참기름을 발라서 구면 먹는다고 했을까. 참기름이 음식의 맛깔을 돋구는 조미료임을 강조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 속에 깔려 있는 의미는 무엇이든 못먹겠느냐는 배고픈 시대의 항변으로 받아들여진다.

2. 生業的 側面

생업적 측면에서 본 제주도민의 생계여건은 자연적 측면에서 언급된 環海天險의 劣惡性과 맞물려 돌아가는 유기적인 相關性을 띠고 있다. 생업은 그 지방의 입지적 여건인 풍토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필연적 결과라 하겠다. 그 중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상을 활동무대로 하느냐, 바다를 활동무대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인 경우는 農事, 畜産, 사냥이 주축을 이루고 후자인 경우는 漁撈, 潛水, 鹽業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상술하겠지만, 우선 밝혀 둘 것은 이들 생업활동을 통해 나타난 선인들의 생활상과 生計觀은 생업속담의 형성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속담 전반에 걸쳐 미친 바 영향이 컸다는 사실이다. 농업이나 축산을 중심으로 한 農畜文化의 형성과 바다를 생활권으로 끌어들이는 海洋文化는 제주도를 오늘날 특수한 고유문화권으로 존립케 함으로써 한국문화의 폭을 넓히도록 한 것은 그 의의가 자못 큰 것이다.

그 한 예로 한국 본토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海女生活의 모습이 담긴 潛嫂俗談은 한국 여성속담의 독보적인 존재로 꼽을 수가 있다.

먹고 산다는 것은 삶의 원초적 선결과제인 만큼 의식주 해결을 위한 활동은 모든 행동에 선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이 배경이 되어 그 지방 고유의 주민의식과 습속을 낳게 만든 것이다.

(1) 農畜과 狩獵

1) 農 事

고래로 농사와 축산은 일차산업으로서 생업의 근간을 이룬다. 이와 병행되었거나 훨씬 앞서 행해졌던 수렵 또한 생계수단인 생업의 일부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제주도민의 생활사에 빼놓을 수가 없다.

먼저 農事에 대한 것부터 살펴기로 한다. 단적으로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듯이 가장 확실한 생계보장의 생업이었다. 참고로 토지현황을 1988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제주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면적 1,824.34km²중 林野가 971.97km², 耕地 520.71km²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볼 때 임야가 총면적의 53.3%, 경지가 28.5%, 나머지 17.2%는 목장지·대지 등으로 되어 있어 경작지가 전체면적의 1/3에 불과하다. 농사와 직접 관계된 경지면적 20.71km²을 대상으로 더 구분해 보면 田이 393.23km²로 총면적의 21.5%이고 과수원이 118.28km²인 6.5%인데 비해 畓은 9.2km²로서 0.5%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밭농사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과수원과 畓인데 사실상 옛날은 지금처럼 제주도 전역에 감귤원을 조성하여 換金作物로 대량생산을 했던 것은 아니다. 집울타리를 중심으로 몇 십 그루 내외에서 생산되는 소규모의 특산물로서 조정의 진상품으로 귀하게 여기는 기호품일 따름이다. 畓 곧 논밭인 경우 자연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처럼 漏水현상으로 지상에 물이 고여 있는 기간이 짧고 샘터가 극히 적으며 강물이 없으므로 해서 논밭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다. 한정된 일부지역의 샘을 중심으로 몇 십 마지기 논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농사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빈약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濟州牧이 田 3977結, 畓 31結, 旌義縣이 田 3208結, 大靜縣이 田 2217結, 畓 85結 등 三邑의 田畓현상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¹⁴⁾

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밭벼(陸稻)를 가꾸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앞의 「통계연

14) 김봉옥. 前掲書, p. 85.

보」에서 제시된 총면적 0.5%에 해당하는 9.20km의 짧은 사실상 옛날 그대로의 전래면적 외에 1960년대 이후 인공적인 관계시절을 통해 새로 조성한 면적이 첨가된 것이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일부 논이 도시계획에 따라 없어지기도 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대표적인 곳은 제주시의 '덕지답'(제주시 이호동)과 서귀포시의 강정천 주변의 그 표본이다. 그러니 밭농사에 의한 잡곡이 주식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시사철 일반서민들에게 있어 쌀밥은 忌祭日이나 잔치 때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다.

평소에 쌀밥을 먹는다면 이는 소문난 부자거나 권력층에 해당한다. 식생활은 富를 대표하는 척도의 하나였다. 다음의 속담은 그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산뒤쌀이 낭지래 가며, 나룩쌀이 물지래 가랴.
(산도쌀이 나무를 지러 가며, 나룩쌀이 물을 길러 가랴.)

밭벼인 陸稻농사가 논에서 생산되는 벼농사 대신으로 행해졌다고 말했지만 白米인 쌀은 곡식의 으뜸이었다. 수사법으로 보면 이 속담은 의인법으로서 결국 쌀은 땀감인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갈 필요도 없고 물을 길러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쌀밥을 먹는 사람은 직접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쌀밥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노동의 괴로운 멍에를 걸머지고 부대껴야 한다는 말도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의 농사는 일년을 둘로 나뉘볼 때, 상반기인 초여름까지는 보리농사, 하반기인 늦가을까지는 조를 중심으로 콩, 산도, 메밀, 깨농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보리농사는 높은 지대의 火田에서는 잘 되지 않으므로 중산간부락 이하의 낮은 지대의 농토를 중심으로 해서 성행했고, 가을곡식은 화전에서도 수확이 좋으므로 바깥 때는 야외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농사를 지었다. 이처럼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에서부터 김매고 가꾸는 일, 거둬드리는 일 등 삼단계 과정을 거치되, 악천후인 天災의 피해가 덜해야 많고 적고 간에 광속에 들어왔다.

이와 같은 과정이 거듭되는 동안 삶의 애환과 歷程을 담은 제주도 특유의 노동요(김매는 노래·밭 밟는 노래·타닥질노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속담 또한 이런 생활속에서 형성되어 오늘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 오뉴월 마당질엔 애기 젓 먹이멍 숨 드린다.
(오뉴월 타작질에는 애기 젓 먹이면서 숨 들이쥘다.)
- ㉡ 굶인 쿨 메젠 흥민 케운 쿨로 매여 진다.
(굶은 종자 매려 하면 아끼는 종자로 매여 진다.)

㉢은 메돌·방아노래에도 나와 있지만 오뉴월은 무덤기도 하려니와 보리타작에 몹시 바쁜

시기다.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일손이 딸린다. 잠시 잠깐 어린애 젖을 먹이는 순간 가쁜 숨을 잠시 누그러트린다는 것이다. 지금은 베면서 그대로 탈곡까지 되어 나오는 농사일이지만 고되고 수입이 뒤진다는 명분으로 농촌을 떠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일일이 낫으로 베고 이삭만 잘라내어 벌에 쏘인 다음 도리깨로 두들겨 탈곡해 내는 노고를 겪어야 했다. 더구나 <보리 굵고 삼가지 퍼질 때는 장인 봐도 궁둥이로 질한다.>는 속담에서는 그런 바쁨을 더 해학적으로 비약시킴으로써 노고의 정도를 실감케 하고 있다.

㉔은 농부가 종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다. 장래성이 없는 종자는 제거해 버려야만 좋은 수확이 예상되는 종자가 잘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쁜 종자만 가려 뽑을려다 보면 뽑지 말아야 할 종자가 본이 아니게 뽑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비단 곡식의 종자선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간사에서 때로 욕식을 가린다는 것이 뜻하지 않게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두고 일컬어 지기도 한다.

2) 畜 産

제주도의 축산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것은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 제주도의 開闢說話인 '三姓神話'의 '且持駒犢五穀之種', '自此以後始成產業 植播五穀且牧駒犢'이라는 대목에 송아지와 당아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州胡人 시대에 대한 중국의 史書인 三國志 魏志東夷傳이나 後漢書에 '好養牛及猪'라는 기록은 소와 돼지가 專業은 아니라 하더라도 私家에서 즐겨 길렀다는 것으로 볼 때 일단은 三國時代 전후해서 축산의 시작 됐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제주도의 축산인 목축은 농사와 불가분의 유대를 맺어야 하는 共存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농경생활에 직결도가 어떠냐에 따라 변창했다. 그러나 실제 속담에 드러난 가축으로는 소·말·돼지·닭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羊인 경우는 극히 미미해서 지금까지 채록결과 '놀당 죽은 염송애기나 기당 죽은 황밭갈채나(놀다가 죽은 염소나 일하다 죽은 황소나)'가 고작이다. 나머지 가축 중 돼지와 닭에 대한 것도 적은 편이나 그나마 그 실상을 살필 정도는 되고, 牛馬에 이르러서는 농경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우마의 꼬리털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宕巾의 제작은 부녀자들의 가내 부업이자 수공업으로서 가계에 큰 보탬이 되었다.

참고로 조선 正祖때 牛馬의 사육현황을 열거해 본다.¹⁵⁾

15) 김봉옥, 前揭書, p. 93.

목	장	위	치	넓	이	우	마	필	수
제 주 목	일소장 (一所場)	구좌읍	위	주위	55리 · 동서 20리 · 남북 18리		말	878	필
	이소장 (二所場)	조천읍	위	"	50리 " 20리 " 10리		"	792	"
	삼소장 (三所場)	제주시	위	"	50리 " 20리 " 10리		"	429	"
	사소장 (四所場)	제주시, 애월읍		"	45리 " 18리 " 15리		"	573	"
	오소장 (五所場)	애월읍	위	"	60리 " 25리 " 20리		"	1,094	"
	육소장 (六所場)	한림읍, 한경면		"	60리 " 25리 " 20리		"	1,314	"
대 정 현	우도장 (牛島場)	연평면	내	"	50리 "		소	243	두
	칠소장 (七所場)	안덕면	위	"	40리 " 20리 " 10리		말	440	필
	팔소장 (八所場)	중문동	위	"	35리 " 15리 " 10리		"	362	"
정 의 현	모동장 (毛洞場)	대정읍	내	"	37리 "		소	203	두
	구소장 (九所場)	남원읍	내	"	70리 " 35리 " 5리		말	510	필
산 장 山 場	십소장 (十所場)	표선면	위	"	40리 " 15리 " 10리		"	1,103	"
	녹산장 (鹿山場)	남원읍 경내		"	60리 " 25리		말	1,573	필
	상장 (上場)	표선면	위	"	75리 " 30리				
침장 (針場)	조천읍	위	"	45리 " 15리					

위 표는 正祖 16年 三邑志를 참조한 것인데 牛馬數가 모두 15개소로 구분되어 그 면적까지 정해 놓았고 거기서 放牧되는 牛馬의 수효까지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소보다 말이 월등히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는 필요 없고 말만 중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주도가 牧馬場으로는 최적지임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國策으로 제주도에 馬政이 실시되고 그에 따른 牧子들의 고충도 컸다.

그럼 구체적으로 목축이나 가축에 대한 속담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소·말·돼지·닭을 대상으로 하나씩만 예시한 다음 그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그 형성배경의 단면을 밝혀 보기로 한다.

- ㉠ 검은 쇠가 진상 간다.
(검은 소가 진상 길에 오른다.)
- ㉡ 물 한 데서 물 못 골린다.
(말 많은 데서 말 못 고른다.)
- ㉢ 귀어나난 도새기 또 귀어난다.
(튀어났던 돼지 또 튀어난다.)

㉔) 독도 지압씩 그너 먹나.

(닭도 제 앞의 것부터 헤쳐서 먹는다.)

㉕) 이 속담은 소 사육에 얽힌 사연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왜 하필이면 황소도 아닌 黑牛인 검정소가 조정에 바쳐지는 진상물로 정해졌을까다. 李元鎮의 「耽羅志」에 보면 牛屯의 소는 순흑색이 적고 잡색이 많은데 나라에서는 祭享에 黑牛를 쓴다고¹⁶⁾ 한 대목이 있다. 이것은 韓本土에서 소 사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黑牛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제주도에게 그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고려 때부터 목마장으로 활용했던 만큼 축산의 適地로서 소의 사육도 정책적인 施政의 일부로 다루었다는 데 기인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英祖 10년(1734) 정월 정유에 보면 전라감사 趙顯命이 農牛가 매우 적어 牧場牛 천여두를 얻기를 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宋眞明이 말하기를 濟州牛는 본시 천두에 불과한데 매년 20두를 순흑색으로 골라 서울로 보내어 희생으로 공납하고 있으므로 관서의 屯田牛 천여두를 보내도록 하니 임금의 이를 옮겨 여겼다고¹⁷⁾ 한 것이나, 英祖 26년(1749)에 加波島에 黑牛場을 설치하여 50首를 방목하고 眞貢에 대비했다는¹⁸⁾ 것을 보더라도 해마다 일정량의 黑牛가 진상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다.

이와 같은 黑牛 사육은 특수한 사례이고 사실상 農牛의 사육은 農耕에 없지 못할 귀중한 노동력이었다. 밭을 갈고 곡물과 물건을 운반하는 등 그 효용치가 컸다. 좋은 황소를 부린다는 것은 큰 재산이요, 자랑거리다. 웬만하면 농가에는 소를 기르기 마련인데 그렇지 못하면 밭갈이 때마다 남의 소를 빌려야 하는 고충이 뒤따른다. 하다 못해 자기의 소를 가질만한 능력이 없으면 남의 소를 몇 년간 조건부로 사육하게 되는데 그것을 '맴쉐 맨다', '맴쉐 지룬다'고 한다. 또 소의 관리로 봄풀이 돋으면서부터 늦은 봄까지는 대개가 마을 단위로 소 가진 사람들이 교대로 番을 정하여 이삼십 마리에서 백여 마리까지 草地로 물고 다니면서 풀을 먹인다. 그러다가 여름철 밭갈이가 끝나면 목야지로 올려보내 방목한다. 겨울철 가정에서 마련된 사료는 추석을 전후해서 배어 말린 乾草를 울안에 쌓았다가 한 묶음씩 빼내어 먹일 뿐 여름을 먹이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제주도의 쇠고기는 부드럽지 못해 질기다.

㉕)의 속담은 말의 수요가 많았던 데서 비롯되고 있다. 물진이 많이 진열된 곳에 가면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는 것과 같이 말이 워낙 많으면 어느 말을 골라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아마 지금도 제주도의 조랑말이라면 전국적으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의 사육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麗蒙연합군에 의한 三別抄軍의 정벌

16) 李元鎮, 「耽羅志」,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 279 '牛屯在東魚登浦上 國屯牛純墨少而 雜色多 國用祭享墨牛'

17) 濟州道文化放送, 前掲書, p. 521.

18) 金錫翼, 前掲書, p. 413, '設墨牛場於加波島 放牛五十首 以備進貢'

은 몽고로 하여금 제주도에 牧馬場을 설치케 하는 계기가 됐다. 忠烈王때 元의 塔羅赤이 牛馬駱驢羊을 싣고 와서 水山坪(현재 南濟州郡 城山邑 水山里)에서 방목했는데 말이 蕃息했다¹⁹⁾는 것이 그 시초다. 그 후 元의 牧胡들이 良馬管掌을 위해 들어와 온갖 행패를 부렸고 최영 장군이 이들을 축출하기까지 100년 가까이 지배함으로써 말의 量産을 촉진했다.

그러나 몽고가 완전히 손을 떼고 물리간 다음도 고려의 목마장으로 계속 활용되었고 조선시대로 접어들어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李太祖부터 定宗, 太宗 三代에 걸쳐 조정에 바친 貢馬數는 무려 3309마리에 이르렀는데 사적인 개인 선물로 진상된 것도 121마리나 된다.²⁰⁾ 牧使나 監牧官으로 하여금 馬政을 준엄하게 시행했는데 國馬인 경우 牧子를 두어 養畜하도록 하고 해마다 한두번씩 점검을 하여 차질이 생기면 家財를 털어서 변상해도 모자라게 되므로 牧子가 되는 것은 죽음만 갈지 못한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어쩌다 흉년으로 죽을 고비를 맞게 되면 우선 살고 보자는 생의 애착으로 목마를 잡아먹었다가 탈로가 나면 평안도나 황해도 지방으로 강제로 추방당하는 수도 수백명에 이르렀다. 世宗 18년(1436) 6월 乙卯에 그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대신의 獻議하기를 제주는 땅이 좁은데 백성은 조밀하니 우마를 도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말이 번식하지 못하므로 청컨데 우마 도살자는 온 가족을 출륙시키고 ……平民과 公賤은 평안도나 황해도 땅은 넓고 백성이 드문 곳으로 옮겨서 安業케 하십시오. ……趙順生으로 하여금 推刷하여 출륙케 했더니 그 수가 800에 이르렀다. 전라도에서 평안도까지 노인과 어린 아이들을 부축하고 업은 것이 길에 줄을 이었다. 고되고 고생이 되며 추위와 굶주림에 얼어 죽은 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²¹⁾

나중에 일부는 귀향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타향에서 거주해야 하는 비운을 맞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良馬數가 점차 줄어들자 馬政에도 여러가지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商人들에 의한 國馬의 바뀌치기와 內陸지방으로의 무단방출, 賊失이 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烙印을 찍어 公私馬를 表示했는데 특히 ‘市’字가 찍힌 것만이 出陸이 허가되었다.²²⁾ 또 良馬增殖을 위해 목야지에 築場을 해서 말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도 그와 관계된 상갓(上城), 하갓(下城)의 구분이 있어 民家에서는 地境의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古藪牧馬라는 瀛洲十景도 바로 이런 牧馬場의 형성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다.

19) 金錫翼, 前掲書, p. 363. ‘元奇皇后 遣塔羅赤 載牛馬駱驢羊來 放于首山坪(今水山屬旌義) 施設牧子以監之 馬大蕃息彌滿山野’

20) 본 頭數는 필자가 「耽羅錄」(제주문화방송·1986)에서 李太祖~太宗까지 기록된 것을 집계한 것이다.

21) 濟州文化放送, 前掲書, pp. 107~108.

22) 濟州文化放送, 前掲書, pp. 169~170.

그러나 지금은 사육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1988년 발행된 「제주통계연보」에 따르면 1987년 현재 1400마리에 그치고 있다. 이 중에도 純土種의 조랑말은 극소수여서 1986년 2월에 제주도는 제주산 조랑말 70여 마리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하고 정책적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㉔의 속담은 돼지가 그 사육되는 우리를 뛰어넘는 버릇이 생기면 자꾸만 우리를 이탈하게 된다는 말이다. 제주도의 재래식 돼지우리는 사방을 돌담을 쌓아 가두워 기른다. 버릇이 나쁜 돼지는 주둥이로 담을 허물고 튀어나기 좋아 한다. 한번 튀어나기 버릇하면 좀처럼 고쳐지지 않으므로 결국 팔아 버리거나 도살 당하는 것이 일쑤다. 이 말은 사람에게도 비유된다. 본분에 이탈된 일을 저지르기 버릇하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저지른다는 것이다.

돼지는 생산과 관계된 활용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었다. 오직 고깃덩어리를 보고 사육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돼지사육은 내륙지방과는 유다른 점이 있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人糞을 먹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비위생적 낮 뜨거운 생활습속이 하나다. 반면에 인분 처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다. 집이 있는 곳에는 돼지우리가 필수적으로 마련된다. 돼지를 기르는 목적의 하나는 인분을 처리하는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밭이나 채소밭에 인분을 거름으로 뿌리는 일은 없다. 어찌다가 무위도식하는 사람더러 된육을 하여 나무랄 때면 돼지같은 놈이라고 하거나 돼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빈정거리게 되는 것도 이런 데서 연유된다.

㉕의 속담은 닭의 습성을 지적함으로써 인간의 욕구가 순리에 역행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닭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앞에 놓인 검불더미를 발로 헤집어 파헤칠 때 바로 자기 앞에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상례다. 제 앞에 있는 것은 놓아두고 남의 앞에 있는 것을 탐낼 수 있는 인간의 욕심의 세계를 닭이 생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돼지가 가옥마다 걸러졌던 것처럼 닭 역시 두세 마리씩은 걸러졌다.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기르던 닭을 잡아서 대접하면 최고의 귀빈에 해당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고급 반찬의 하나로 달걀이 유일한 재료였다. 결혼식 날 신랑신부가 받아 앉은 잔치상은 그날 차린 음식의 극치다. 이때 어린 아이들이 노리는 珍味의 대상은 삶은 달걀을 온 것으로 얻어내는 일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알아차리는 매개체로서의 구실이다. 날씨가 흐려 캄캄한 밤인 경우 시간을 가늠하기가 몹시 어렵다. 이런 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자정 이후의 시간을 짐작하게 된다. 요즘은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양계장에서는 종잡을 수 없이 울어대지만, 토종닭은 꼭 시간에 맞춰 울었다. 문헌기록에는 닭에 대한 사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소·말·양·돼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가축의 중심이 家禽類보다는 네발달린 牧畜에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狩 獵

육상에서 이뤄지는 원시적 생업인 수렵은 어떠했을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업이었지만, 이에 관한 모습을 상세히 밝힐 수 있는 기록은 없고, 오직 고고학적 측면에서 석기시대의 유적발굴에 의한 유물을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할 뿐이다. 三姓神話에 등장하는 碧浪國의 삼공주가 오곡씨와 송아지와 망아지를 싣고 나타나기 전의 高·梁·夫 三乙那의 모습은 狩獵생활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農耕생활이 이뤄지기 전에는 수렵이 생계해결의 생업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본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산촌에는 겨울철 사냥을 위한 태왁²³⁾·가축버선·털가죽 감투·털가죽 외투가 있었다.

사냥의 대상은 노루·산돼지·오소리·산소·꿩이다. 현재 산돼지와 산소는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 노루, 오소리, 꿩만이 여전히 서식하고 있다. 없어진 것 가운데 산소는 '워립쇄'라고 해서 농우와 다른 別種의 야우가 아니라 放牧중에 유실된 농우가 산 속에서 인적을 피해 서식했던 입자없는 소를 말한다. 이 '워립쇄'의 사냥은 눈이 많이 쌓인 한라산 숲 속에서 이삼인이 짝이 되어 '태왁을 타고 가죽버선과 털가죽 감투, 털가죽 외투를 착용하고 이뤄진다. 눈이 많이 쌓이면 사납고 날랜 '워립쇄'가 활동을 못해 한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것을 '통전다, 통절었다'고 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급속도회한다. 그 고깃맛은 飼育牛보다 좋다고 해서 별미로 간장독에 담가두었다가 두고두고 조금씩 꺼내 먹었다.

그럼 노루, 오소리, 꿩사냥의 모습이 속담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 보겠다.

㉠ 노리케기 훈 점 먹젠 흥당 지케기 열 점 일른다.

(노루고기 한 점 먹을러다가 제 고기 열점 잃는다.)

㉡ 오루도 날굼 들굼이 싣나.

(오소리도 나갈 구멍 들어갈 구멍이 있다.)

㉢ 우영에 든 꿩 놔뵈 맛디 꿩 심젠 흥다.

(울안에 든 꿩 놓아두고 밭의 꿩 잡으려 한다.)

㉠의 속담은 노루 사냥의 고충을 드러낸 것이다. 야생하는 사냥물중 구미를 당기게 하는 것은 노루다. 재래식 노루잡이는 노루가 잘 다니는 통로에 코를 걸어 놓고 그 코에 목이나 몸통이가 걸리도록 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잡는 것이 상례였다. 코를 이용하면 며칠에 한번 돌아보면 되지만, 사냥개로 잡으려면 사람이 먼저 지형지물을 잘 관찰하고 노루가 잠입해 있을 만한 곳으로 개를 유도하는 요령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니 사람도 개 못지않게 산야를 누벼 뛰어다니는 노고가 따른다. 피로에 지쳐 쇠진해지기 일쑤이고 또 체력의 소모도 가중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노루 사냥의 모습이 결국은 조그마한 이득을 노리다가 더 큰 자기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무엇을 얻으려면 상당한 노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南槎錄」에

23) 눈 덮인 위를 걸어도 발이 빠져들지 않도록 나뭇가지나 다릿줄로 둥그렇게 휘어서 엮어 만든 신 위에 끼 신는 것.

도 秋來初冬에 한 고을 軍丁을 동원하여 짐승을 포획하고 잡는데 잡힌 것은 노루와 사슴이 가장 많다고 했다.

㉠의 속담은 오소리의 생태를 통한 자기방어(보호)수완을 보여주고 있다. 오소리는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데 통로를 하나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두개 이상 마련한다. 그래야 적의 피습을 당해도 다른 통로로 피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오소리 사냥은 가을철에 이루어진다. 모든 짐승이 그렇지만 가을에 살이 찌고 고기맛도 제 맛이 난다. 오소리는 가을철에 먹을 것을 마냥 포식하고 지방질을 축적했다가 한겨울 동안 그의 서식처인 굴 속에서 동면의 날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제 몸의 탄력과 비만 정도를 시험해 보기 위해 발이랑에 누어서 덩굴어 보거나 높은 비탈이나 언덕에서 밀으로 굴러 떨어져 보고 아픈 데가 있으면 몸보신이 덜 된 것으로 알고 다시 먹이를 열심히 찾아 헤맨다는 것이 사냥꾼의 이야기다. 아뵤든 오소리는 노루와 함께 사냥의 대상으로 꼽는 짐승이다. 근간에도 몸이 쇠약한 사람에게 보약제가 된다고 해서 고가로 거래되는 실정이며, 處世上 굶뜨고 수완이 없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을 꼬집거나 일깨우는 말로도 사용된다.

㉡의 속담은 꿩 사냥을 통한 認知的 깨우침이다. 가까운 울타리 안에 들어온 꿩을 두고 넓은 밭에 있는 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네발 달린 짐승도 그렇지만 꿩은 날짐승이므로 어느 쪽으로 날아갈지 방향 감각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한 지경에 널리 벌려 서서 날아든 꿩을 다시 쫓는 과정을 되풀이 하는 가운데 지쳐 더 이상은 날지 못하고 바위 틈이나 덩굴 속에 숨으면 포획하는 방법을 썼다고 하나, 그 적중률이 낮았다. 가장 손쉽고 포획률이 높은 것은 통로를 찾아 철사로 코를 놓아 목을 걸러 잡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대문명과 함께 철사의 등장이 있고 난 다음이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통발형태로 나무가지나 댓가지를 밭 구석에 꼽아 위장한 다음 멀리서 몰아넣는 형태가 있었다고 한다.

(2) 潛漁와 鹽業

1) 漁 撈

제주도에 관한 문헌기록을 더듬어 보면 李元鎮의「耽羅志」土産부분에 기재된 魚類는 옥돔(王頭魚), 은어(銀口魚), 상어(鮫魚), 갈치(刀魚), 고등어(古刀魚), 멸치(行魚), 문어가, 「南冥小乘」에는 복어(鰻魚), 옥돔(王頭魚)이 많다고 했다. 옥돔과 복어는 현재도 제주도의 특산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고급어가 되고 있고, 멸치는 북제주군 舊左邑 月汀里, 杏元里, 金寧里 등지에서 다량으로 잡혀 멸치후리는 노동가요까지 전래되고 있다. 은어인 경우는 西歸市 天池淵폭포 밑 20여 m의 수심 속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27호 무태장어(大鰻)와 함께 제주도에 現存하는 淡水魚다. 金淨의「濟州風土錄」에는 漁撈法의 일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물고기는 혹은 그물로 혹은 낚시로 낚는다. 바다에는 작은 고기류가 수종이 있으니, 역시 언덕에 앉아서 낚는다.

(或綱得或釣得 海有小魚數種 亦可坐岸而釣)"고 했다. 이것은 배를 타고 深海로 나가서 하는 漁撈라기보다 海邊의 연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어업기술사적인 면에서 보면 삼국시대부터는 상당한 수준의 造船術과 함께 內水面 어획에서 海面어업으로 확대되어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貝藻類, 새우, 어류의 捕獲이 이루어졌으며 제주도인 경우도 地瘠民貧하여 生計를 어업에 의존한다는 것이 文宗年間의 기록에 보인다고 했다.²⁴⁾

제주도의 원시 연안 어로형태의 하나로 돋보이는 것은 '테우'를 이용해 '자리(자돔)'를 그물로 떠올리는 작업이다. 지금은 '테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여름철을 정점으로 '자리'는 계속 떠올러지고 있어 향토음식의 별미로 '자리회'가 미각을 돋우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자의 拙稿 '濟州島俗談의 素材와 職能'²⁵⁾에서 밝혔던 대로 어업은 潛業과 함께 本島의 水産業의 근간을 이루는 생업이었다. 원시적인 沿岸漁撈의 영세성과 釣漁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선이라 해도 나룻배와 같은 帆船이거나 통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형태의 '테우'가 어선 노릇을 했다. 어로방법만 보더라도 주냥법과 藻魚類의 포획을 위한 投綱法을 썼고, 때로는 해변에서 뉘대를 드리우거나 간단한 차를 이용한 방법의 하나로 '원담'을 두루고 썰물때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를 포획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렇게 해서 잡힌 어류는 換穀되어 가계소득의 일익을 담당했는데, 이들 어로속담들은 주로 어부의 생활상과 釣漁에 관계된 豫報의 성격을 띠고 있다.

- ㉠ ㅂ재기 삼대민 조상을 물에 녹인다.
(어부 삼대면 조상을 물에 녹인다.)
- ㉡ 뱀 들어난 뒤 큰 켜기 문다.
(뱀치 들었던 뒤 큰 고기 문다.)
- ㉢ ㅂ재기 사을 일긴 안다.
(어부 사흘 날씨는 안다.)

㉠의 속담은 어부의 노고에 못미치는 직업적인 병폐와 후유증을 드러내고 있다. 어부의 활동 무대는 바다이므로 위험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차하면 水中孤魂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수익의 보장되어 가정경제에 획기적인 운택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다. 어촌생활이 다 그랬지만 앞세울 만한 실속이라곤 없다. 魚類는 식량을 축내는 밥도둑놈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웬만큼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면 찬거리로 사들이는 예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므로 소득이 늘어날 수 없고 매양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이다. 조상을 제대로 못 모시고 바다에 눕혀야 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딱한 삶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24) 朴九乘, '韓國漁業技術史', 「韓國文化史大係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68, pp. 89~104.

25) 拙稿, '濟州島俗談의 素材와 職能', 「陶南學報」제9집, 陶南學會, 1986, pp. 35.

㉔ 은 어획을 위한 敎示의 속담으로 어로의 경험을 되살리고 있다. 海魚는 먹이를 따라 이동하게 되므로 멸치는 그 좋은 먹이가 된다. 그래서 제주도 근해에는 멸치떼가 몰려왔던 때는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고기들이 해변 가까운 곳까지 접근한다. 이 때를 이용해서 어부들은 굵직한 고기를 잡은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특히 고등어는 지금도 멸치어장이 형성되곤 다음에는 많이 잡힌다고 한다.

㉕의 속담은 어부가 일기예보의 氣象通報官의 기능까지 터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전에도 보면 사공은 日官을 겸하고 있어 날씨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바다를 생업의 현장으로 더불어 살아온 사람일수록 일기변화에 대한 직감은 예민하다. 한밤중이나 동틀녘에 물결울렁이는 소리만 듣고도 날씨를 예감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체득된 산 지식이다. 고도의 器機를 통해 통보되는 측후소의 예보가 빗나갈 때도 이들 어부나 잠수업에 종사하는 노련한 사람들의 예보가 적중될 때면 자연의 섭리를 알아차리는 직각과 영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潛 水

잠수란 자매질을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말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潛嫂, 潛女, 海女라고 부르는데 이들 모두가 여자라는 것이 특색이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연약하여 고된 노동이나 힘에 부치는 과중한 일은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생계여건이 여인네라고 손쉬운 일만 골라서 하고 집안 일만 돌보며 살 수 있는 안이한 형편이 못됐다. 가정일 외에 노동을 하지 않고는 가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풍토성과 역사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남자보다 더 고달픈 一人二三役을 해냈다. 그 중에서도 잠수생활은 제주도 여인이 감당해냈던 자활기능이자 생업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괄목할 만한 의의를 갖는다.

어쩌면 오늘날 海女로 불려지고 있는 이들 潛嫂들의 始原이 제주도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생업적 차원에서 여인네들에 의해서 공공연히 행해져서 현재로 전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로 독보적인 고유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잠수에 대한 문헌을 통해 보면 朴九乘은 '韓國漁業技術史'에서 三國志 魏志東夷傳의 韓傳중 馬韓條와 升辰條, 倭人條에 文身을 했고 魚貝類를 潛獲한 사실을 들어 오늘날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은 潛水漁業이 원시적인 형태로 이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도인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잠수생활이 있었을 것이고, 그 구체적 고증이 가능한 것은 고려시대에 와서다. 文宗 33년(1079) 耽羅國에서 大眞珠 두개를 바쳤는데 그 빛이 빛났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夜明珠라 했고²⁶⁾ 忠肅王 2년(1276) 元에서 사람을 耽羅에 보내어 眞珠를 채취케 하였으나 얻지 못하여 民衆所藏의 眞珠 백여개를

26) 朴九乘, 前掲書, p. 103~104.

거두어 돌아왔다²⁷⁾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제주도가 잠수의 근원지 여부는 다각적인 고증을 거친후 내려져야 할 과제이지만, 해녀의 활동상만은 세계적인 것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잠시 이들 海女의 작업상을 살펴보면 사시사철 일년 중 어느 철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 대개는 무수기에 맞춰 밀물 때 나갔다가 들물 때 들어오는데 보통 두세 시간은 바다에서 지낸다. 잠수의 깊이도 보통이 5m내외 깊으면 10m내외가 되며 물 속에서 숨을 멈추고 작업하는 시간도 1분에서 3분까지 계속된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를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해서 채취한 생복, 소라, 해삼, 미역 중 귀한 생복류는 관가에 징발되고 나면 나머지는 겨우 생계유지에 급급할 정도의 소득에 불과했다. 그 중에도 미역은 교역품이 될 정도로 비교적 다량으로 채취가 되어 내륙지방에 반출시킴으로써 換穀의 가능했다. 해변가의 촌락은 거의가 해산물의 채취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남녀 구분없이 10세가 되면 해엄을 못치는 사람이 없어 1950년대만 하더라도 해녀수는 제주도 여성의 40%인 4만여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6천여명 이내로 줄어 들었다. 그것도 대부분 40대 이상에 편중돼 있고 20대 이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1988년 제주시가 관내 海女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활동 해녀수는 391명으로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40명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가 99명, 30대가 47명, 20대가 10명, 10대가 1명 등 30대 미만은 3%인 11명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고도산업사회의 형성으로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海女의 모습이 살아져 갈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1987년도부터 35세 미만의 해녀 50여명을 선정하여 무형문화재로 뽑고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으나 해결을 못보았고 1989년에는 인원을 조정하여 매해 그 육성을 20명 선으로 잡고 후계자를 양성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졌으나 5월 현재 확정이 안된채 미결상태로 있다.

제주도 해녀의 분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에까지 확산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밝혀진 바로는 1930년에 1,500여명의 제주도 출신 해녀가 일본에 건너갔다는 현장 채록 결과가 나왔다. 1989년 4월 25일자 濟州新聞(4면)에 在日교포2세 어류언론인 金榮과 梁澄子에 의해 1983년부터 4년간 日本 千葉縣 房總半島 일대 제주출신 해녀의 생활터전을 조사하고 그 실상을 「바다를 건너간 朝鮮人 海女」란 책자로 발간 해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1903년 三宅島를 시발점으로 海女의 渡日을 시사했고 현재도 60·70세의 노파들이 하루 5시간 이상 물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생활의욕은 1932년 1월 24일 抗日시위로까지 타오를 수 있다. 내용인 즉, 식민지 수탈의 일환으로 해산물 처리 관제조합이 결성되어 해녀의 권익을 묵살시킴으로써 北濟州郡 舊左面 細花里에서 舊左, 城山 일대 6개 마을 해녀 천여명이 관제조합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

27) 朴九乘, 前掲書, p. 103~104.

며 日警과 대치했다. 그 때 해녀 대표였던 夫春花, 金玉蓮은 6개월간 옥고를 치르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²⁸⁾, 이것은 나라 잃은 백성의 울분만은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체득된 불패의 기질인 삶에 대한 강한 집념과 고난을 딛고 가정을 일궈온 제주도 여인의 생명의식의 발로였다.

이렇듯 제주도 해녀의 생활상은 한반도의 내륙지방의 여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 특유의 여성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여성속담 중 제주도의 여성속담은 봉건제도하의 여자 卑下만이 아닌 自尊性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음을 이미 두 논문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²⁹⁾ 기존 연구들은 한국여성속담은 남존여비에 따라 여자비하의 것으로 다루었다. 그것은 기존 속담사전에 의한 자료의 한계성에서 오는 현상이므로 여자의 自尊性을 첨가하여 보완시켜야 할 것이다.

- ㉠ 줍년. 애기 나뉘 사을이민 물에 든다.
(잡너는 애기를 낳고 사흘이면 바다에 들어간다.)
- ㉡ 귀숨이 9마사 시절 좋다.
(성계가 여물어야 시절이 좋다.)
- ㉢ 삼월 보름 물저엔 도둑질 생각나면 집에 든다.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도둑질 생각나면 집에 든다.)
- ㉣ 똥 나민 도새기 잡앙 잔치하곡, 아들 나민 발길로 조롬팍 찬다.
(딸나면 돼지 잡아서 잔치하고, 아들 나면 발길로 궁둥이 찬다.)

㉠의 속담은 濼女 즉 海女는 어린애를 낳고 삼일만 되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바다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는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인의 강인한 생활력이야말로 내륙지방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 특유의 현상으로서 그 활동상이 여러 형태의 속담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 속담은 바다에서 채취해낸 棘皮動物인 성게류가 그 몸 속에 여물이 꼭 차 있으면 그 해 농작물도 잘 여물어 풍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여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半農半漁의 생활환경에서는 상호비교를 통해 추출된 경험적 확률을 근거로 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로서는 예견으로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바다에 풍년이 들어야 농사도 풍년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 속담은 일년 중 가장 썰물이 많이 날 때가 음력 삼월 보름이 무수기이므로 이 때가 되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가 아니더라도 바다로 물러들었다. 그렇지 않고 집에 머물러

28) 姜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0, pp. 91~100.

29) 拙稿, 「濟州島の 女性俗談」, 「국어국문학 86」, 국어국문학회, 1986.

_____, 前掲「濟州島俗談研究」.

있으면 남의 집 물건을 훔치기 위한 응큼한 흥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대부분의 집안이 텅 비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㉔의 속담은 아들보다 딸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가계소득을 위한 해녀의 생산성과 연계된 實利를 노린 것이다. 北濟州郡 涯月邑 東貴里는 그 앞바다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형성돼 있어 소득이 많으므로 島内の 海女들은 이곳으로 시집가는 것을 선호할 정도였더니 왜 이런 속담이 이뤄졌는지 그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다.

3) 鹽 業

소금은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조미료다. 더구나 빈곤한 생활여건에서 직접적인 유일의 반찬은 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장을 담글 때는 소금을 넣어야 제대로 된 맛깔이 나기 마련인데도 소금이 몹시 귀했다. 바다물도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염분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소금에 비할 바가 못된다. 어찌보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산물도 풍부한 것처럼 소금생산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각과는 달리 소금이 몹시 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 실상을 살필 수 있는 문헌의 기록을 몇 개 인용해 보겠다.

“가장 우스운 일은 이 땅이 큰 바다로 둘러싸였으나 소금이 나지 않은 일이다. 서해와 같이 田鹽을 얻고자 하나 물을 떠다가 갈아도 소금이 없고, 동해와 같이 海鹽을 얻고자 하나 물이 싱거워서 공은 백배 드나 얻는 바가 적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도나 해남 등지에서 사들이는 까닭에 민간에는 극히 귀하다.”³⁰⁾

“나는 보니 별방에서 정의까지 그 사이에 염전이 두 곳이 있었다. 일찌기 冲庵錄을 보니 땅이 큰 바다에 둘러있어도 소금이 생산되지 않는데 지방인에게 물어보니 戊午年 姜侶가 목사로 된 때부터 해변의 齒地를 하고 陸地沿海 지방의 소금 삶는 법과 같이 하도록 하였더니 한 가마에서 삶은 것이 겨우 너댓 말밖에 안 되고 맛도 몹시 썼다고 한다. 지금은 全島 일곱 곳에 鹽盆이 있어 官家廚饌의 공급을 이룰 수 있지만 민간은 이것으로 쓸 수 없어 모두 육지에서 사다가 썼다. …… 땅이 큰 바다에 둘러싸였으나 소금이 생산되지 않고 珍島, 海南에서 사들인다.”³¹⁾

“소금은 바닷가가 대개 確磯로서 염분이 있는 땅이 극히 적다. 이 땅에서는 水鐵이 생산되지 않으며 가마솥을 못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금이 아주 귀하다. …… 鹽漢은 관에서 가마솥

30) 金 淨,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 12, ‘最可笑者 地環巨海 而鹽不產 慾煮田鹽如西海 則無鹽可耕以汲 慾煮海鹽如東海 則水淡功百倍 而所得絕少 必質於珍島海南等處 故民間極貴’

31) 金尙憲, 『南事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p. 58~59.

‘余見 自別防至旌義 其間有鹽田數處 曾見冲庵錄 地環巨海不產鹽 問諸土人 自戊午年 姜侶爲牧使時 視海邊齒地 教解事人 試如陸地沿海海鹽之法 一釜所煮 僅四五斗 而味頗苦 今則環海七處有鹽盆 足繼官家廚饌之供 民間則不能以此資用 並質於陸地… 地環巨海 不產鹽 質於珍島海南’.

을 공급하여 준 사람은 소금 두 말을 바치고 자기 술은 한 말을 바치도록 했다.”³²⁾

이상의 것을 보더라도 소금생산의 적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나마 그 흔적을 1960년대 까지만 해도 北濟州郡 舊左邑 終達里와 南濟州郡 大靜邑 日果里, 東日里에 염전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도 종달리는 꽤 큰 편이었는데 1968년도에 완전 농토로 바뀌고 말았다.

㉠ 종달리 쉼 지 때에 새끼도 못 난다.

(종달리 소는 제 때에 새끼도 못 낳는다.)

㉡ 영등돌 초하루 사을 벌민 종달릿년 남죽 들령 춤춘다.

(2월 초하루 삼일 날씨 좋으면 종달리 여인 죽젓개 들고 춤춘다.)

㉠의 속담은 ‘종달리 소금 실은 암소 마을 들듯한다’와 함께 제주도에서 종달리는 가장 큰 소금생산지로서의 내력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당시의 운송수단의 하나는 우마인데 그 가운데고 소가 적격이었다. 말보다 훨씬 성질이 느긋하고 껌싸지 않아서 소금을 싣고 마을마다 골목을 돌아다니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보니 암소는 受精期도 놓치고 번식마저 억제 당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이뤄졌다.

㉡의 속담은 소금생산과 날씨와의 상관관계를 드러낸 것이다. 소금생산을 위해서는 날씨가 맑고 일광이 잘 비쳐야 한다. 영등달은 음력 2월달로서 대개 우천이 되는 때가 많아 소금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나 초하루에서 3일간 연이어 날씨가 쾌청하면 그 달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소금생산이 순조롭게 됨을 기뻐한다는 뜻에서 죽젓개를 들고 춤춘다고 해학적 표현을 덧붙였던 것이다.

Ⅲ. 生業俗談의 樣相

제주도의 속담중 생업속담은 農耕俗談과 海洋俗談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序言과 形成背景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주도민의 생활여건은 고대로부터 생계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업에 전력을 쏟아야만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내륙지방에서는 일부 지방의 漁撈를 제외하고 농업이 주된 생업이었으나 제주도는 입지적 풍토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半農半漁의 생업사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陸上을 무대로 하는 농사와 축산, 바다를 무대로 하는 어로와 잠수가 주축을 이루었고 거기에다가 狩獵과 鹽業이 부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상업인 行商도 있었지만 후일 좀더 자료를 보강하여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논의로 했다. 오직 농축과 맥을 같이 하는 농사·축산·사냥을, 해양과 연관된 어로·잠수·제염을 대상으로 하는 211편의 자료에 입각해서 素材·內容·主題별 분류에 주안점을 두었다.

32) 李元鐵, 前掲書, p. 224~275.

‘鹽海濱 皆是確嶼 斥鹵之地甚少 此地又不產水鐵 有釜者無多 故鹽極貴 … 鹽漢 給官釜者 月取二斗 私釜則取一斗’

1. 農畜俗談

본 농축속담의 대상은 1989년 1월말 현재 채록 정리된 211편중 131편을 자료로 삼은 것이다. 좀더 세분하면 농사에 관한 것이 51편, 축산에 관한 것이 64편, 사냥에 관한 것이 16편이다. 여기서 수렴인 사냥을 꺼 넣은 것은 專業으로서의 사냥이라기보다 농경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부수적 생업으로 축산과도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계획은 제주도의 생업속담들의 속성과 실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재·내용·주제 이외 職能別 분류까지 생각했으나 실제 분류과정에서 내용분류와 혼선중복되는 사례가 겹쳤다. 분류항목 하나를 더 살리려다가 혼잡성이 더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어 내용분류로 족하다고 보고 직능분류는 생략했다.

(1) 素 材

속담은 문장화하면 거의가 短文으로 기술된다. 그러면서도 그 短形속에는 하나 이상의 핵심 話素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추상어보다는 구상어인 실물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물론 추상적인 소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분류의 대상 소재로는 구상어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해당 생업의 屬性과는 거리가 먼 것은 배제시키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만을 선별한 다음 <표 1>과 같이 생업별 구분에 따라 上位材와 下位材로 나뉘 분류했다.

<표 1>에 나타난 결과를 생업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農畜俗談의 素材

<표 1>

생업	上 位 材		下 位 材	비 고
농 사	생 물	식 물	종자(6), 곡식·잡초(각4), 삼(3), 조·콩·벼(각2), 개·메밀·마늘·골무기(杵木)·도에낭(각1)	'도에낭'은 표준어를 모르 므로 방언 그대로 표기함.
		동 물	소(3), 말(1)	
	무생물	용구(用具)	맷돌(3), 방아·키(각2), 말(斗), 절구(각1)	
		식물(食物)	밥(3), 조밥·쌀밥·술(각1)	
		토 지	밭(11)	
		기 타	물·비·돌(각2)	
	계 절	사 철	봄·여름(각1)	
		절 기	백중·처서(각1)	
		달 (月別)	6월·7월(각2)	
	축 산	가 축	四 足 類	소(26), 말(24), 돼지(11), 개(5), 염소(1)
二 足 類			닭(5), 병아리(1)	
기 타		屯(3), 牧子·뿔·달걀(각2), 금승·말판 (줄)·길마·풀·갈기·돼지우리(각1)		
수 렫	개·노루(각2), 꿩(8), 구멍(2), 꿩새기·매·오소리·꿩알·눈(雪), 산(각1)			

1) 農事俗談의 素材

① 生物: 생물소재는 식물류와 동물류로 나뉘는데 식물류는 거의가 발작물인 곡물과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동물류는 소와 말에 한정돼 있다. 먼저 식물류부터 살펴보면 '종자'가 많은데 곡물의 수확은 종자의 질이 일차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는 통념의 표시다. 될성부른 종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종자의 성장문제가 질적으로 좋으나 나쁘냐는 그 해 곡식의 豊凶을 판가름하게 된다. 실제 속담에서도 이런 점들의 話素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잡초'와 '삼(麻)'인데 곡식류에 비하면 수량면으로 좀 뒤지고 있지만 그 이면을 검토해 보면 농경생활에 있어서 利害相反한 일상성이 드러나고 있는 증거가 된다. 종자의 성장을 조장하고 보호하는 작업이 농작물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다.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김을 매어주는 노고가 몇 갑절 더하다. 평균잡아 한 작물을 수확하기까지 두세번 정도는 호미를 들고 밭이랑에 꼬부리고 앉아 김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김매는 작업이 농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순간의 노고를 달래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사뽀소리'라고 하는 제주도 특유의 김매는 노래인 노동요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 '삼'은 삼배의 원료도 되지만 밧줄의 재료로서 한몫을 했다. 벗짚만으로 만든 줄은 삼으로 만든 줄에 비하면 그 強度나 질기고 여린 면에서 볼 때 심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악한 우마와 漁船을 끌어매거나 農具用 밧줄의 긴요한 자료로 재배되었던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樹木으로는 '굴무기(机木)'와 '도에낭'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라산을 무대로 자생하는 나무중 가장 질이 강하고 단단한 것으로 꼽힌다. 그래서 농기구나 절구는 물론 가구를 만들면 오래 두어도 썩이 안 썩고 쉬 달아지지 않아서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實利性的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물소재는 소와 말이 있을 뿐이다. 소인 겨우는 전국적으로 농사에 이용했으므로 農牛라고 하여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제주도에서는 말을 조의 파종 때 밭을 밟는 農馬로 이용했다는 것은 내륙지방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농법과 관계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無生物: 전반적으로 볼 때 제주도 속담에는 먹는 것과 관계된 것이 많다. <표·1>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농사속담의 用具가 식생활의 도구이고 보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특히 '밭'이 단일 소재로는 그 등장빈도가 높다. 그것은 곡물류의 생산원이 바로 토지인 밭이므로 농토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고대농경사회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여기서 밭은 논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곧 제주도가 밭농사가 절대적 생업임을 드러낸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기타 소재에 드러난 '돌'과 함께 '멧돌·방아'이다. 石多의 섬이라는 천연적 여건을 최대로 활용했다는 점을 놓칠 수 없다.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돌의 활용은 제주도 농경문화의

정수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분명하다. 현재는 그 모습이 박물관 진열품으로 전락되고 말았지만, 멧돌·방아노래와 더불어 제주도민의 애환이 서린 생활필수품으로서 농가마다 갖춰져 있어 식생활에 기여한 바 컸다.

③ 季節 : 계절은 농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묘하게도 봄을 제외하면 모두 여름철에 해당하는 소재가 등장하고 있다. 음력 6·7월이면 삼복더위가 겹치는 무더운 때이고 백중이 음력 7월 15일 처서가 양력 8월 23일 깨이니 농작물이 한참 자라는 여름철이다. 이때 기후의 변동이라도 있고 보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다. 더구나 백중과 처서는 날씨가 꽤 청해야 곡식이 잘 된다고 하는 俗說的인 면에서 6·7월은 농작물 관리에 바쁘고 괴로운 때라는 점과 연관된 것이다.

2) 畜産俗談의 素材

① 家畜 : 축산의 대상은 가축일 수밖에 없으므로 <표·1>에 나타난 대로 소와 말이 주류를 이루고 돼지·개·염소의 순으로 되어 있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여기서 다루는 가축은 생업속담과 관련하여 축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소재의 가축만을 대상으로 했다. 만일 축산과 관계없이 가축의 꺼 있는 속담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집계는 달리 나타난다. 참고로 한국속담의 동물소재 분석을 보면 개·소·호랑이·말…순으로 돼 있다.³³⁾ 이것은 생업속담의 소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속담에 나타난 동물분류에 의한 것이다. 실제 생업적 직능이 살아날 수 있는 축산으로서의 속담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필자도 제주도 속담 550편을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 동물소재중 가축만 집계해 보았더니 개(33), 말(29), 소(25), 돼지(11), 닭(병아기 포함 6), 염소(1)로 나타났다.³⁴⁾

그러나 생업속담과 관련해서 축산의 내용이 반영된 속담만을 대상으로 분류해 보니 개가 가축소재의 최다의 위치에서 닭보다 적은 5위로 내려갔다. 이것은 축산으로서의 가축은 농경과 직결되므로 소와 말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수 밖에 없다. 그외의 돼지·닭·개는 부수적이면서도 생계를 돕는 가축으로 부상되었고, 유독 염소가 그 면모를 드러낸 것은 飛揚島(北濟州郡 翰林邑)와 牛島(南濟州郡 演坪面)가 牧養地였다는 흔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³⁵⁾

기타 소재로서 특이한 것은 '금승'이다. 이것은 송아지나 망아지의 한살(一歲)를 나타내는 용어다. 두살 때부터는 소인 경우는 다간·사릅·나릅·다습…등으로 말인 경우는 이수·삼수·소수…등의 용어를 썼다.

33) 金善豐, '한국속담의 소재분석', 『韓國民俗大觀 6』,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2, p. 579.

34) 拙稿, 前掲 '濟州島俗談의 素材와 職能', pp. 22~24.

35) 金尙憲, 前掲書, p. 137. '按地誌 飛揚島在州西海中 州牧羔于此云'
李元鎮, 前掲書, p. 279. '羔罔牛島飛揚島俱有之'

3) 狩獵俗談의 素材

수렵소재는 사냥물과 일치한다. <표·1>에 드러난 소재들을 연결시켜 보면 사냥개를 매개체로 삼고 네 발 달린 짐승으로는 노루 오소리를, 날짐승으로는 꿩이 으뜸이다. 사냥의 장소는 눈덮인 들판이나 산일 수 밖에 없고 오소리는 땅굴을 파서 생활하므로 구멍인 통로를 잘 활용해야 했던 사냥의 모습을 되살려 주고 있을 정도이다.

(2) 內 容

農畜俗談의 내용에 대한 분류도 소재에서와 같이 농사·축산·수렵별로 구분시켰다. 그 기준은 직능을 중심으로 분류의 항목을 설정하되 포괄적으로 그 속성과 윤곽이 집약될 수 있도록, 자잘하게 쪼개는 세분화를 지양하고 농사속담은 栽培·收穫·酷使·叱責을, 축산에 대한 속담은 牧養·品評·活用을, 수렵에 관계된 속담은 그 대상물인 노루·오소리·꿩을 분류항목으로 내세웠다.

1) 農事俗談의 內容

① 栽培(23편) : 제주도의 생업속담 211편 중 농사속담은 51편인데, 그 내용을 보면 作物栽培와 관련된 것이 23편이다. 편의상 그 23편을 다 열거하지 않고 몇 편을 골라 해설한 다음 나머지는 대표적인 것 5편을 예시함으로써 그 실상의 윤곽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 9름 콩 늦이 갈민 줄레 뽑나.

(여름 콩 늦게 파종하면 꿩새끼가 뽑는다.)

㉡ 유월 발창 사을 지저우민 누영 먹나.

(유월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누워서 먹는다.)

㉠은 콩농사와 관계된 속담이다. 콩농사에서 제 시기를 놓쳐 늦게 파종하면 꿩새끼들에 의해 솟아나는 싹이 뽑히게 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아 콩농사는 음력 5월을 전후해서 보리 그릇더를 갈아서 파종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다. 만일 이 시기를 놓쳐 5월 하순이 지나면 꿩새끼가 떼를 지어 물러다니면서 돋아나는 콩의 싹을 뽑아 먹어버리거나 입부리로 쪼아서 뽑아버린다. 그래서 콩농사의 파종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의 속담은 한여름 피약벌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면 편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매미와 개미의 이야기처럼 미래를 대비한 개미의 근실성과 같은 내용이다. 음력 6월은 북더위가 계속되는 무더운 시기다. 이 때 밭에 나가 김을 매노라면 열을 받은 땅이 뜨거워지니 그 땅을 밟고 있는 발바닥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아랑곳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며 열심히 일을 하면 곡식이 잘 자라 수확이 좋아지므로 식량에 대한 걱정을 않게 된다는 것이다.

〈例示〉

- 제운 쿨 제우젠 흐민, 미운 쿨도 제와진다.
(좋은 종자 아꼈려면 나쁜 종자도 아껴진다.)
- 물 한 해 꿰 안 된다.
(물 많은 해에 깨 안 된다.)
- 검질 짓곡 굴늦인 밧던 소리로 우경 간다.
(김이 우거지고 굽이가 늘어진 밧은 노래로 우기며 간다.)
- 미운 놈 보컨 질 나는 밧 버실라.
(미운 놈 보러거든 길 나는 밧 경작하라.)
- 강정 아이덜은 조팍 주켄 흐민 안 울곡, 곤밥 주켄 흐민 운다.
(강정 아이들은 조밥 주겠다면 안 울고, 쌀밥 주겠다면 운다.)

② 收穫(18편) : 수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재배 다음으로 18편이다. 이들에 대한 언급의 절차는 재배에서 취했던 방법을 따랐다.

- ㉠ 송년에 푸는채 물론 곡식.
(흉년에 키 모른 곡식.)
- ㉡ 보리 굽곡 삼 거릴 땐 가시아방 바도 조름으로 절훈다.
(보리 굽고 삼가지 벌어질 때는 장인 보아도 궁둥이로 절한다.)

㉠의 속담 내용은 고구마와 감자 농사의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수확기를 맞아 곡식류는 탈곡한 후 저장할 때 알맹이만을 골라내고 다른 지꺼기들은 추려 버려야 한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키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구마나 감자는 키가 필요치 않는다. 또 곡식이 모자랄 때 식량 대응으로 식생활에 큰 보탬이 될 뿐더러 장만하여 저장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덜 거처도 간편하게 수확된 농산물로서의 긴요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의 속담은 수확기의 몹씨 바쁜 전경이 해학적으로 나타나 있다. 보리가 익어 거둬드릴 때가 되면 삼[麻]까지 덩달아 가지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 보리 거둬들이랴, 삼 해 들이랴 이중 삼중으로 일손이 딸린다. 그러니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맞아야 할 장인을 대하고도 일에 열중하다가 보니 엉겁결에 방향감각도 제대로 못찾고 궁둥이가 장인 쪽으로 향한 채 본의 아닌 불경한 인사를 하고 만 것이다. 그 정도로 농번기 때의 바쁨을 엿볼 수 있다.

〈例示〉

- 집은 막사리에 살아도 밧을 사라.

(집은 오막살이에 살더라도 밭을 사라.)

○ 체 불리는 부재 웃나.

(겨 날려버리는 부자 없다.)

○ 벤 애길 지드리멍 혼 용실 지드리랴.

(배어 있는 애기를 기다리며 지은 농사를 기다리랴.)

○ 난지꽃 필 땐 이 즈식 저 즈식 혼당 삼 거릴땐 이리 안심 저리 안심 혼다.

(난지꽃 필 때는 이 자식 저 자식하다가 삼가지 벌어진 때는 이리 앉으시오 저리 앉으시오 한다.)

○ 바릇이 9마사 7슬도 읊나.

(해물이 여물어야 가을 곡식도 여문다.)

③ 酷使(5편) : 지금은 옛날처럼 심하게 농사를 짓지 않은 편이지만 손이 놀면 입도 논다고 해서 농가에서는 밭에 살다시피 했다. 그러니 혹사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육체적 노동의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속담은 5편에 불과하므로 例示만 하고 해설은 생략하겠다.

<例示>

○ 기는 놈은 아진 놈이 종인다.

(일하는 사람은 앉아서 노는 사람의 종이다.)

○ 눈썹에 불부터도 끌 저를 웃나.

(눈썹에 불붙어도 끌 겨를 없다.)

○ 오줌 뉘 털 저를 웃나.

(오줌 누어 두고 털 겨를 없다.)

○ 여자로 나느니 췌로 나주.

(여자로 나느니 소로 나지.)

○ 나 어멍은 그리는 애기 놈은 주난 종으로 부린다.

(내 어머니는 그리는 애기 남은 주니 종으로 부린다.)

④ 叱責(4편) : 농사속담의 내용중 제일 적은 4편이다. 이것 역시 例示만 하고 해설은 생략한다.

<例示>

○ 익은 밥 먹곡 선 일혼다.

(익은 밥을 먹고 선 일을 한다.)

○ 좁쌀마니 사를메 시민 놈이 집 안 산다.

(좁쌀만큼 살방도가 있으면 남의 집살이 안 한다.)

- 일 병신 밥 장수.

(일은 병신 밥 먹기는 장수.)

- 꼭 걸으레 간 놈이 정당벌립³⁶⁾ 망 돌른다.

(치 걸으러 간 놈이 정당벌립의 천을 엮는다.)

2) 畜産俗談의 內容

① 牧養(28편) : 축산에 대한 속담은 64편으로 농사속담보다 10여편이 더 많다. 그 가운데 牧養에 관한 것이 28편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해설은 농사속담의 내용에서 처럼 28편에 대한 개별적인 언급은 일일이 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것 몇 편에 한정시켰고 또 例示도 5편으로 제한하였다.

- ㉠ 쉼 노는 디 쉼 놀곡, 물 노는 디 물 논다.

(소 노는 데 소 놀고, 말 노는 데 말 논다.)

- ㉡ 뚝 일러사 통시담 고친다.

(돼지 잃어야 돼지우리의 담 고친다.)

㉠의 속담은 가축들도 種別로 끼리끼리 돈을 형성하여 생활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목장에 가보면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소는 소들 끼리 말은 말들 끼리 서로 어울려 지낸다. 만약 放牧중인 우마를 잃어버리면 으레 소인 경우는 소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나서고, 말인 경우는 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상례다.

㉡의 속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속담이다. 제주도에서는 돼지를 기르는 우리는 '통시'라고 해서 주위를 돌담으로 둘러쌌다. 어쩌다 허술해서 허물어지는 날이면 돼지는 밖으로 뛰쳐나가 잃어버릴 수 있다. 뛰쳐나가지 않더라도 단단히 울타리를 쌓지 않으면 쉬 허물어져서 도난당할 허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돼지를 기를려면 우선 그 우리부터 단단히 쌓고 미리 후환을 없애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例示>

- 큰 쉼 큰 쉼 허멍 출도 안 준다.

(큰 소 큰 소 하면서 꼴도 안 준다.)

- 상жат디 논 므쉬도 한두 번은 돌아본다.

(상жат에 놓은 우마도 한두 번은 돌아본다.)

36) 멍맹이 덩굴로 엮어 만든 병거지.

- 나 한 말은 콩 말뚱 흐랏.
(나이 한 말은 콩 마다고 할까.)
- 밀알 서사 득새기 난다.
(밀알 있어야 달갈 낡는다.)
- 갠 지 발콥만이 먹어도 산다.
(개는 제 발톱만큼 먹어도 산다.)

② 品評(22편) : 품평이라고 함은 對比의 차원에서 評定이 그 본연이지만, 여기서는 좀더 확대시켜 資質과 가치관을 가늠하는 내용의 것도 포함시켰다. 가축의 사육목적은 인간생활을 돕는데 있었던 만큼 그들의 됴됨이가 좋고 나쁨을 가늠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고 보니 이들 품평에 해당하는 것은 22편이다.

- ㉠ 말도 칠팔춘을 꼴린다.
(말도 칠팔춘을 가린다.)
- ㉡ 서푼짜리 니엄 들려보지 말라.
(서푼짜리 이빠디 들려보지 말라.)

㉠의 속담은 말을 인사불성의 인간과 대비시키고 있다. 짐승인 말도 칠팔춘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되고도 일가친척을 제대로 몰라볼 때 쓰여진다. 이것은 말의 외형적 품종우량에 대한 가시적 품평이 아닌, 그들 생태를 통한 수범적 慣行을 교훈적으로 평정한 것이다.

㉡의 속담은 몇 푼 안되는 우마를 야박하게 너무 속속들이 들여다 보지 말라는 것이다. 값이 싼 만큼 하자도 결함도 있기 마련임을 전제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마를 매매할 때 거의가 손으로 입을 벌여 이빠디를 들여다 보고 연령이며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예사다.

<例示>

- 금승뭇생이 갈기 외우 질지 는다 질지 몰른다.
(한살짜리 망아지의 갈기 왼쪽으로 굽을지 오른쪽으로 굽을지 모른다.)
- 접박부리³⁷⁾ 지 가늠 모르명 쥘레질 흐랏.
(접박부리 제 가늠 못하고 싸움질 한다.)
- 도새기새끼 두 볼 때 더 윤진다.
(돼지새끼는 두 번째 때가 더 굵다.)

37) 뿔이 망그라진 소.

- 갠 첼 나무레곡 첼 갠 나무레곡.
(개는 겨를 나무라고 겨는 개를 나무라고.)
- 검은 독도 흰 독새기 난다.
(검은 닭도 흰 달걀 낳는다.)

③ 活用(12편) : 모두 12편으로 되고 있는데 가축들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의 한 측면을 살필 수 있다.

- ㉠ 밤 길엔 쇠랑 앞세와도 몰랑 샅썰지 말라.
(밤 길에는 소는 앞세워도 말은 앞세우지 말라.)
- ㉡ 비바리광 생부통인 쓸디 써바사 안다.
(처녀와 부록송어지는 쓸데 써 봐야 안다.)

㉠의 속담은 밤 길을 걸을 때 소는 몰고 다녀도 말은 몰고 다니면 해롭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소는 성질이 느긋하고 무서움을 잘 타지 않으므로 쉽사리 놀래거나 동요하지 않는데 비해 말은 성질이 급하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곧잘 놀래어 뛰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밤 길에는 소를 앞세워 걸으면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의 속담은 처녀와 부록송아지를 비유한 것이다. 이 둘은 아직도 미완성의 존재로서 장래성이 판가름돼 있지 않은 입장이다. 처녀가 바람직하게 성장하여 현모양처로서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실제 닦쳐봐야 알듯이 부록송아지 또한 농사일에 부러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게 된다.

〈例示〉

- 몰도 그라타사 와랑지랑 혼다.
(말도 갈아타야 와랑지랑 한다.)
- 쇠발로 쟁이 잡나.
(소발로 쥐 잡는다.)
- 몰 하나 풀지 말앙 입 하나 덜베라.
(말 하나 팔지 말고 입 하나 덜어라.)
- 종달리 암헌 지 때 새끼로 못 난다.
(종달리 암소는 재 때에 새끼도 못 낳는다.)
- 간지난 물에 초난 질매 지운다.
(유별난 말에 유별난 길마 지운다.)

3) 狩獵俗談의 內容(16편)

수렵에 대한 속담의 내용은 사냥의 대상물인 노루, 꿩, 오소리별로 구분했다. 그 결과 노루에 관련된 것이 8편, 꿩에 관련된 것이 7편, 오소리에 관련된 것은 1편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제주도의 풍토적 여건과 관련된 수렵대상물의 한계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例示〉

— 노루 —

- 노리가 오금에 민다.
(노루가 다리만 민는다.)
- 노린 질 좃앙 땡긴다.
(노루는 길 찾아 다닌다.)
- 노리케기 혼점 먹젠 흥당 지 케기 열 점 일룬다.
(노루고기 한 점 먹으려다 제 고기 열 점 잃는다.)
- 눈 묻은 산 우트레랑 올르지 말라.
(눈 묻은 산 위로는 오르지 말라.)
- 내려갈 땐 하르바님 하르바님 흥당 올라갈 땐 내 아덜눔 내 아덜눔 흥다.
(내려갈 때는 할아버님 할아버님 하다가 올라갈 때는 내 아들눔 내 아들눔 한다.)

— 꿩 —

- 나드는 개가 꿩 문다.
(나드는 개가 꿩을 문다.)
- 꿩바친 흥착 눈 시나마나.
(꿩 쏘는 사람은 한 쪽 눈 있으나마나.)
- 꿩빙애긴 나민 고망부터 좃나.
(꿩빙아리는 나면 구멍부터 좃는다.)
- 9수룩 흥디 꿩독 썩기 난다.
(어수룩한데 꿩알 난다.)
- 집에 큰 꿩 놔뵤 밧뵤 꿩 잡젠 흥다.
(집에 든 꿩 놔두고 밧의 꿩 잡으려 한다.)

— 오소리 —

- 지다리도 날 굶 들 굶 싯나.
(오소리도 나가는 구멍 들어오는 구멍이 있다.)

(3) 主 題

속담에 있어서의 주제는 직설적으로 표현된 경우는 대개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주제가 되기도 한다. 반면에 重義的이거나 迂廻的으로 표현된 것일 경우는 그 표면적 내용을 한 단계 더 뛰어넘은 形而的 차원에서 간파된다. 또한 선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暗示性에 있다. 그것이 곧 주제를 통한 일깨움이다. 논자에 따라 문제가 될 주제의 설정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각기 달라질 수 있지만, 필자는 해당 俗談群을 중심으로 분류항목을 3~4개씩으로만 제한시켰다. 그래야 주제의 윤곽이 집약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 農事俗談의 主題

농사속담의 주제는 實利·勤實·教示 등 세 항목으로 묶을 수 있었다. 대부분 밭농사를 주축으로 생계해결을 위한 소득과 직결되므로 노력한 만큼의 댓가가 있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① 實利(28편) : 농사속담 51편 중 이들 實利에 해당하는 것은 27편으로 가장 많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일일이 하지 않고 내용 부분에서 취했던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 ㉠ 외조케 케느니 바농밧디 검질메라,
(외조카 아끼느니 마늘밭에 김매라.)
- ㉡ 췌 치레 말앙 밧치레하라.
(소 치레 말고 밭 치레하라.)

㉠의 속담은 외조카는 관심을 갖고 아껴보아도 그만큼의 댓가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차라리 마늘밭에 김을 매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말이다. 삶의 慣習이 성바지를 중심으로 本家 위주가 되고 있는 이상 외가는 어머니의 친정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소홀이 하게 되므로 實利的인 면에서 뒤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의 속담은 소를 치레하는 것보다 밭을 치레하는 것이 실속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소도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될 자산이지만 그보다 밭이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밭을 확보하고 치장하는 것이 더 실속 있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例示〉

- 도 막은 밧 작제 웃나.
(길 막힌 밭 살 사람 없다.)
- 줍쓸마니 사를메 시민 놈이 집안 산다.
(줍쌀만큼 살아갈 방도가 있으면 남의 집 안 산다.)

- 방애랑 흥건 굴무기낭 흥곡, 절귀랑 흥건 도에낭흥다.
(방아는 할려면 굴무기[朱木]으로 하고 절구는 하려면 도에낭으로 하라.)
- 백던 밭 깎 준다.
(가까운 밭 깎 준다.)
- 삼 서끈 하르방은 노래부르곡, 노 서끈 하르방은 운다.
(삼 섞은 할아버지는 노래부르고, 노 섞은 할아버지는 운다.)

② 勤實(14편) : 불과 14편에 지나지 않지만 내내 전수되어야 할 진실한 인간상을 조장시킨 자립의지의 발현으로 평가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 농사는 시기를 놓치거나 게으르면 수확에 타격을 받는다. 부지런히 가꾸고 돌보는 근면과 성실의 實踐躬行을 농사의 좌우명으로 삼고 생활했음을 살필 수 있다. 내용분류에서 酷使와 叱責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여기에 속한다.

- ㉠ 손이 놀민 입도 논다.
(손이 놀면 입도 논다.)
- ㉡ 정칠월 모밀농사 뒤 바룻가민 늘어진 불 보젠 구쟁기 나온다.
(칠월 메밀농사 뒤에 바다에 가면 늘어진 불 보러 소라 나온다.)

㉠의 속담은 일을 안하면 굶게 된다는 뜻이다. 손은 근로의 상징이므로 일을 앓고 편히 먹기를 바라는 부당성을 경계하면서 근로의 당위성을 은연중에 권장하고 있다.

㉡의 속담은 좀 속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당시 생활의 참 모습이 그대로 돼비쳐 지고 있다. 음력 칠월은 메밀농사가 끝날 무렵이다. 이 칠월달은 음력 삼월달과 함께 바다에 썰물이 많이 생기므로 바닷가로 나가서 게도 잡고 고동, 소라, 전복, 해초 등을 채취하여 별미를 곁들여 영양보충의 기회로 삼는다. 이때 남자는 그간 밭을 갈고 농사의 된일을 하다보니 기진해질 시기다. 그래도 여가선용을 겸해서 바다에 나가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것은 근면을 생활신조로 삼아온 인간상의 단면일 수 있다. 여기서 음량의 늘어진 것을 보러 소라가 나온다는 것은 농사일에 시달렸던 노고를 우회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학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例示>

- 곱은 일하민 곱은 밥 먹나.
(수분에 맞은 일하면 수분에 맞은 밥 먹는다.)
- 여자로 나느니 쉼로 나주,
(여자로 나느니 소로 나지.)

- 애기엿게 품은 훈 말, 애기어멍 품은 닷돼.
(애기 돌보는 사람 품삐은 한 말, 애기 어머니 품삐은 닷돼.)
- 봄 해엔 애기 두랑 흐린조 훈말 번신다.
(봄 해에는 애기 데리고 차조한 말 벌어들인다.)
- 7슬 해 작대기로 못 바룬다.
(가을 해 작대기로 못 받친다.)

③ 敎示(9편) : 여기서 교시라 함은 경고와 같이 법적 구속력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알리고 깨우친다는 의미다. 따지고 보면 속담 전체가 警句의이고 교시적이지만 다음 예시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농사에 관해 경계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 국한시켰다는데 9편이 이에 속한다.

<例示>

- 될제 종자 괴괴작빠으로 안다.
(될성부른 종자 첫잎사귀로 안다.)
- 벤 애길 지드리멍, 훈 용실 지드랴.
(벤 애기를 기다리며 지은 농사를 기다리랴.)
- 질매착광 짐바린 발라사 훈다.
(길마짜과 짐짜은 골라야 한다.)
- 콩밭디 똥사민 메락 맛나.
(콩밭에 똥 싸면 벼락 맞는다.)
- 놀이 커도 주쟁이³⁸⁾가 으뜸이다.
(노적가리가 커도 주쟁이가 으뜸이다.)

2) 畜産俗談의 主題

주제의 파악은 주제별 분류항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어떤 주제항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곧 주제파악이 되었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막상 시도해 본 결과 64편의 축산속담을 수용시킬 수 있는 주제의 추출이 농사속담에서는 그런대로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비해 까다로웠다. 개중에는 분류의 저항감을 느끼는 걸끄러운 것도 몇 편이었지만 實利·守分·敎示 등 3개의 주제 속에 수용시켰다.

- ① 敎示(28편) : 이를 교시에 해당하는 것은 28편으로 내용분야에서 제시한 것 중 牧養과

38) 이엉을 둘러 덮은 다음 비가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꼭대기에 덮어씌우는 띠나 억새로 엮어 만든 삿갓 모양의 것.

品評의 속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㉞ 종(소)꼬진 밧디 ㄴ쉬 안 들인다.

(종 꽃인 밧에 우마 안 들인다.)

㉟ 말은 지 방구에 놀란다.

(말은 제 방구에 놀란다.)

㉞의 속담은 우마의 방목과 출입을 금한다는 표시로 밧 가운데 댕가지나 나뭇가지를 듨성듬성 꼬아 놓음으로써 그 밧에는 우마를 들여 보내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종(소)란 꽃아 놓은 표지물을 일컫는다. 우마를 기르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 밧에는 우마를 들여 보내지 않는 것이 공인된 상식이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마의 牧養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주제로 보면 경고적 교시가 된다.

㉟의 속담은 조금만 해도 잘 놀래는 말의 습성을 꼬집어 戲化한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말에 대한 品評이고 주제상으로는 말의 輕妄스럽고 실없음을 아리켜 주고 있다.

〈例示〉

○ ㄴ를 쉰 눈을 보곡 쩌를 쉰 빨을 보라.

(뿔 소는 눈을 보고 쩌를 소는 빨을 보라.)

○ 뜬 쉰 올 넘나.

(느린 소 올타리 넘는다.)

○ 삼스월 응매.

(삼사월 응마.)

○ 꺾어나난 도새긴 못 질룬다.

(튀어났던 돼지는 못 기른다.)

○ 집안에 송시 들젠 흥민 뜰은 득이 고지약 흥곡 기시린 듯이 ㄴ름을 톨곡 베긴 개가 응공공 훔다.

(집안에 흥사가 생길려면 뜰은 닭이 꼬끼요 하고 그스린 돼지와 뽕박질하고 벗긴 개가 응공공 짓는다.)

㉡ 實利(22편) : 경고보다는 몇 편 뒤진 22편이지만 농사속담의 주제에서 實利에 대한 것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생업으로서의 축산도 당시 주민들에게 주는 이득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실리에 속하는 주제의 속담은 경고가 목양이나 품평에 대한 내용의 주류를 이룬 반면, 活用に 대한 내용의 것이 고루 반영돼 있다.

㉢ 애비아덜이 몰 탕 가민 이녀 몰 메어 똥 아방 몰 멘다.

(부자지간이 말을 타고 가면 자기 말을 매어 두고서 아버지의 말을 맨다.)

㉔ 준 쉼 푸리 켜다.

(여윈 소 파리 굶는다.)

㉕의 속담은 부자지간에도 한계를 긋고 자기 것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야 부모의 일을 돌본다는 말이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간은 절대적 주종관계에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우선 되어야 하는 실리추구의 한 단면을 조명해 주고 있다.

㉔의 속담은 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윈 자체도 불만스러운데 거기에도 파리마저 더 유난히 득시글 거리니 속상한 노릇이다. 雪上加霜으로 궁한 처지에 고달픈 일이 겹쳐 곤혹스러울 뿐이다. 이것은 곧 득보다 실이 많음을 漸層化함으로써 실리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例示>

○ 미지 먹으면 독 혼 머리 다 먹나.

(꼬리 먹으면 닭 한마리 다 먹는다.)

○ 쉼발로 쟁이 잡기.

(소발로 쥐 잡기.)

○ 물 혼나 풀지 말앙 입 혼나 덜레라.

(말 하나 팔지 말고 입 하나 덜어라.)

○ 물 탄 양반, 쉼 탄 귀양다리.

(말 탄 양반, 소 탄 귀양꾼)

○ 웨조케 케느니 독 질랑 잡아먹으라.

(외조카 아끼느니 닭 길러 잡아 먹어라.)

③ 守分(14편) : 다른 주제도 그렇지만 특히 수분에 대한 14편의 속담은 인간의 생태를 겨냥한 풍자적 성격이 강하다.

㉖ 기시린 도새기가 드라멘 도새기 타령 혼다.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 한다.)

㉗ 재작부리 지 가늌 몰르멍 쥘레질 혼다.

(재작부리 제 가늌 모르면서 싸움질 한다.)

㉖의 속담은 자기가 남보다 더한 곤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똥 묻은 개가 거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자기보다 덜한 처지를 나무라거나 비웃는 것에 대한 비아냥이다. 제 분수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

㉔의 속담에서 '재작부리'는 뿔이 뒤로 휘어진 소를 일컫는다. 뿔이 바로 달려도 모른데 뒤쪽으로 휘어져 있는 주제에 싸움질을 하니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패배할 것이 뻔하다. 제 자신의 자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남을 넘보는 어리석음을 나무라고 있다.

〈例示〉

- ㄷ라멘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타령 한다.
(달아맨 돼지가 그슬린 돼지 타령 한다.)
- 쟈물 성안 감시민 뜯 물 ㄱ으니모르³⁹⁾ 간다.
(빠른 말 성안 가고 있으면 느린 말 ㄱ으니모르 간다.)
- 갠 쉼 나무레곡, 쉼 갠 나무레곡
(개는 겨를 나무라고, 겨는 개를 나무라고.)
- 쉼 노는 디 쉼 놀곡 물 노는디 물 논다.
(소 노는데 소 놀고, 말 노는 데 말 논다.)
- 쉼둔을 물 둔이엔 허라.
(소 둔을 말 둔이라고 하라.)
- 말은 ㄱ구리, 똥은 싸구리, 머국은 황밭갈쉼.
(말은 야구리, 똥은 싸구리, 먹새는 황소)

3) 狩獵俗談의 主題

수렵에 관한 속담은 16편밖에 안되므로 그 내용이 단조로웠던 것과 같이 주제 역시 교시와 실리로 양분된다.

① 敎示(9편) : 사냥에 대한 지식과 일깨움을 통해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例示〉

- 눈 묻은 산 우트레랑 올르지 말라.
(눈 묻은 산 위로는 오르지 말라.)
- 사냥 들어사 개 ㄱ리친다.
(사냥철 들어서야 개 가르친다.)
- 나드는 개가 핏을 묻다.
(나드는 개가 핏을 묻다.)
- 심은 핏 놔둬 노는 핏 심젠 허다.
(잡은 핏 놓아두고 나는 핏 잡으려 한다.)

39) 제주시 '사라봉' 동남쪽 기슭 일대를 이르는 지명.

- 으스룩훤디 썩듯 썩기 난다.
(어수룩한 데 썩 알 난다.)

② 實利(7편) : 거의가 야생물들의 본능적 생태를 드러냄으로써 실속있는 삶을 촉구하고 있다.

〈例示〉

- 사농개 언 똥 들러먹기.
(사냥개 언 똥 훔쳐먹기.)
- 입으로만 썩이여 매여.
(입으로만 썩이다 매다.)
- 썩빙애긴 나민 고망부터 좇나.
(썩새끼는 나면 구멍부터 찾는다.)
- 익어신가 훤 점, 설어신가 훤 점.
(익었는가 한 점, 설었는가 한 점.)
- 내려갈 땐 하르바님 하르바님 훤당, 올라갈 땐 내 아들놈 내 아들놈 훤다.
(내려갈 때는 할아버님 할아버님 하다가 올라갈 때는 내 아들놈 내 아들놈 한다.)

2. 潛漁俗談

본 잠어속담의 대상은 농축속담과 같이 1988년 1월말 현재 채록선별된 제주도의 생업속담 211편 중 80편을 자료로 삼았다. 이들 80편의 자료는 漁撈에 관계된 것이 21편, 潛嫂와 해산물 채취에 해당하는 것이 49편, 鹽業과 관련된 것이 4편, 어로와 잠수 그 어느것에도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둘 다 적용될 수도 있는 공통적인 것 6편이다. 형성배경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한 潛嫂俗談인 경우는 제주도 특유의 海女俗談이자 海洋俗談으로서 한국속담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속명처럼 바다를 생활의 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島民들에게 있어서 海洋은 향토적 특성을 돋보이게 했던 '바다농장'으로서의 큰 몫을 담당했다. 이제 그 실상을 농축속담에서와 같이 素材·內容·主題別 분류에 의해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素 材

소재분류는 농축속담에서는 농사·축산·수렵으로 분리시켰지만 본 잠어속담인 경우는 다같이 海洋俗談으로 명명할 수 있고 취득물 자체도 해산물인 점을 고려하여 어로와 잠수를 구분하지 않고 <표·2>와 같이 한데 묶어 작성했다.

潛漁俗談의 素材

〈표 2〉

上位 材		下 位 材	비 고
해 산 물	어 류	고기(8), 숭어·복어·멸치(각2), 조기·복바리(각1), *굴멍이(군소)	*굴멍이(군소)는 어류가 아니지만 편의상 함께 분류함.
	패 류	고동(7), 소라(4), 전복(1)	
	해 초 류	미역·감태·가사리(각1)	
	갑 각 류	게(집게 포함 6)	
	극 피 류	성게(2)	
	염 류	소금(1)	
인 물		잠녀(9) 어부(6)	
조 수		*바다(13), 들물(9), 무수기(8), 조금(7), 썰물·서물(각6), 한물(2), 열두물·물결(각1)	*'바다'가 조수일수는 없지만 편의상 함께 분류함
용 구		바구니·죽젓개·채(각2), 칼·삼태기·문갑(각1)	
월 별 (月別)		4 월(4) 1 월(3) 3 월·6 월·7 월(각2) 2 월·5 월(각1)	
기 후		비(3) 바람(3)	

1) 漁撈俗談의 素材

魚種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숭어·복어·조기·복바리·멸치 등으로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고기'라고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바닷고기들일 뿐 淡水魚는 없는데 그것은 민물고기가 다량으로 서식할 수 있는 어장인 강물이 없는 도서 지방의 입지적 여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것은 潮水(流)·氣候·月別 소재의 力學的 상관계다. 해양생활은 옛부터 음력을 중시하여 조수(류)관계를 중히 여겼다. 每月 보름과 그믐을 중심으로 무수기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기상관계는 漁夫와 潛嫂들에게는 절실한 관심사였다. 그래서 潛漁俗談 즉, 해양속담의 소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표·2〉와 같이 조수(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는 단독소재로 어부와 용구인 그물이 고작이다.

2) 潛嫂俗談의 素材

우선 인물소재인 潛嫂(海女)란 말부터가 한국본토 속담에는 없는 제주도 고유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잠수들의 모습과 생활상은 내용과 주제별 검토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소재로서의 獨自性만을 지적해 둔다.

잠수소재 중 해산물은 어로소재였던 어류를 제외하면 거의가 바다 속이나 해변에서 채취되는 생물로서 海藻類는 미역과 감태, 가사리 뿐이고 나머지는 갑각류인 게, 극피류인

성제, 패류들인데 특히 貝類가 중심소재를 이루고 있다. 좀더 부연하면 패류인 고등은 다슬기류를 포함한 것이며 갑각류인 게는 집게를 포함시켰다. 또 用具에 대한 소재는 어로용 그물을 빼면 채취용으로 되었고 무엇보다도 팔목할 만한 것은 어로에서도 그렇지만 조수(류)·기후·월별에 관한 것이 두드러지다. 어로활동에 못지않게 해녀들은 潛水作業으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무수기의 조수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의해 능률을 올리기도 하고 못 올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썰물과 밀물, 무수기, 조금 등 바다의 생태와 절후가 관심사로 오르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봐야겠다.

끝으로 鹽業의 직접적인 소재는 소금뿐이다. 실제 이에 대한 속담도 4편만 채록되었다.

(2) 內 容

해양속담인 잠어속담은 漁撈와 潛水에 관한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을 다시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어로속담은 漁獲·生態·氣象으로, 잠수속담은 潛嫂·採取·生態·氣象으로 분류된다. 나머지는 소금에 관한 것과 잠어속담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상과 생태적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漁撈俗談의 內容

① 漁獲(10편) : 어로속담 21편 중 10편으로서 釣漁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조금엔 캐기 안 문다.

(조금에는 고기 안 문다.)

㉡ 케긴 물 쌀 때 나끄젠 말앙 물 들 때 나끄라.

(고기는 물 쌀 때 낚으려고 말고 물 들 때 낚아라.)

㉠의 속담은 고기 낚는 시기를 잘 택해야 잘 낚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조금 때는 물이 잘 빠져 나가지 않고 滿潮상태에 있으므로 해변에는 조류의 변화가 없어진다. 이 때는 해변가에서 낚는 고기는 잘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 속담 역시 고기 낚는 시기에 대한 타이름이다. 썰물 때는 조류에 의해 해변가의 고기가 밀려나게 되므로 자연 깊은 바다로 이동해 버린다. 그러니 잘 낚을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들물 때는 고기가 많이 밀려오므로 들물 때가 훨씬 잘 낚을 수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例示>

○ 어재기도 느릴 때 바사 안다.

(어부도 내릴 때 보아야 안다.)

○ 구물코가 삼천이민 절릴 날이 쏜다.

(그물코가 삼천이면 걸릴 날이 있다.)

- 돌 지기 반 든 물, 돌 뜨기 반 든 물.
(달 질 녘 반은 들어온 물, 달 뜰 녘 반은 들어온 물.)
- 멜 드러난 뒤 큰 궤기 문다.
(멸치 들어난 뒤 큰 고기 문다.)
- 서물 낚은 궤기 안 문다.
(서물 낚은 고기 안 문다.)

② 生態(7편) : 어류의 생태를 직접 드러냈거나 그를 통해 인간의 생태를 되짚어 보게 하는 것 7편이 이에 속한다.

- ㉠ 멜도 배설 싣나.
(멸치도 배설 있다.)
- ㉡ 송어 튀난 북쟁이도 튀단 원담에 배 걸렁 죽나.
(송어 튀면 북어도 튀다가 원담에 배 걸려서 죽는다.)

㉠의 속담에서 배설은 곧 창자로서 성깔에 비유되고 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작은 멸치이지만 창자인 배설이 있다는 생태적 구조를 들어 사람이야 두말할 여지가 이겠느냐는 것이다.

㉡도 마찬가지로 어류의 생태를 통해 인간의 생태를 떠올리고 있다. 송어가 물 위로 뛰어 오르니까 제 가늠도 모르고 북어도 덩달아 뛰어 오르다가 원담에 걸려서 죽게 된다. 이것은 漁類의 생태를 偶話의 측면에서 다루어 놓았다.

<例示>

- 어시 쨌 디 새끼 쨌다.
(어미 쨌데 새끼 쨌다.)
- 삼스월엔 송어 눈 어둡나.
(삼사월에는 송어 눈 어둡다.)
- 칠산바당 조기 튀난 제주바당 북쟁이 쨌다.
(칠산바다 조기 튀니 제주바다 북어 쨌다.)
- 북바리 좃 쨌기.
(북바리 좃 잡기.)
- 바룻쨌긴 밥 도둑놈.
(바닷고기는 밥 도둑놈.)

③ 氣象(4편) : 어로와 기상관계는 서로 맞물려 있다. 기상변화에 따라 어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포기될 수도 있는 최대변수가 바로 기상상태다. 여기서는 어로에 적용된 것만으로 한정하였으므로 例示처럼 불과 4편에 지나지 않고 있다.

〈例示〉

- ㅂ재기 사을 일긴 안다.
(어부 사흘 일기는 안다.)
- ㅂ재기 사을 썬민 강알 굽어 본다.
(어부 사흘 날씨 사나우면 사타구니 굽어 본다.)
- 초정월 우치민 ㅂ재기가 운다.
(초정월 우천이면 어부가 운다.)
- 정월 초하룻날 블민 ㅂ재기 각씨 남죽 췌영 춤춘다.
(정월 초하룻날 맑으면 어부 아내 죽젓개 잡고 춤춘다.)

2) 潛水俗談의 內容

① 潛嫂(24편) : 漢字表記를 통해 구분되고 있지만 潛水는 물 속에 자맥질하여 잠긴다는 뜻으로 쓰였고 潛嫂는 물 속에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해내는 여자인 海女로서 潛水의 행위자인 주체가 된다. 누차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해양속담 중 본 潛嫂를 대상으로 한 내용의 속담은 한국속담 특히 한국여성 속담에서 제주도가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존재로 단연 돋보이고 있다. 수량면에서는 80편의 해양속담 가운데 1/4에 웃도는 24편이다.

- ㉠ 잠녀 애긴 사을이민 골체에 눅져 뵙 물질 혼다.
(잠녀 애기는 사흘이면 삼태기에 눅혀 두고 물질한다.)
- ㉡ 한 췌깃날 물에 일곱 번 들언 집에 오민 살렛지동 심영 혼든다.
(한 조곰날 물에 일곱 번 들었다가 집에 오면 살강 기둥 붙잡고 혼든다.)

㉠의 속담은 해녀(잠녀)는 어린 애를 낳고서 3일이면 그 애기를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삼태기에 눅혀두고 자맥질로 해산물을 채취해낸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것은 다음 ㉡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주도 여인의 강인한 자립의지의 굳건함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의 속담은 해산물 채취로 인해 과로한 해녀의 모습을 실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해녀가 바다에 들어갈 때는 무수기를 이용해서 썰물과 밀물을 잘 타야 해엄치는데나 작업을 하는데 힘이 덜 들게 된다. 조곰인 경우는 간만의 차가 형성되지 않아 썰물과 밀물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두 번도 힘에 부치는데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물질을 하고서도 집에 돌아와서 살강의 기둥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여력도 초인적 체력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몸을 돌보지 않고 바닷일에 신명을 바쳤다는 것은 해녀의 강인한 생활력을 간파하고도 남는다.

〈例示〉

- 썰물 때 들엇당 들물 때 나온다.
(썰물 때 들엇다가 들물 때 나온다.)
- 물에 들 땐 흐릿이곡 나올 땐 천칭만칭 구만칭.
(물에 들 때는 한빛이고 나올 때는 천층만층 구만층.)
- 질쌘흐는 할망은 천이 닷 필이곡, 물질흐는 할망은 죽언 보난 단속웃도 웃나.
(길쌘하는 할머니는 옷감이 다섯 필이고, 물질하는 할머니는 죽고 보니 단속웃도 없다.)
- 물질랑 썰물에 흐곡 케기랑 들물에 나끄라.
(물질은 썰물에 하고 고기는 들물에 낚아라.)
- 잠녀 애긴 일뻬만에 것 맥인다.
(잠녀 애기는 이레만에 밥 먹인다.)

② 採取(12편) : 채취의 대상으로 들어난 것은 貝類 가운데 소라·고둥을 비롯해서 게·성게·군소·미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해녀에 의한 水中採取는 제외한 것이다.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측면에서 같지만, 앞의 潛嫂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해녀의 작업에 의하지 않고 썰물 때 해변에서 이뤄지는 내용의 담긴 12편을 대상으로 삼았다.

- ㉠ 물 썰 땐 나비좁자당 물 들어사 품바리 잡나.
(물이 썰 때는 나비잡자다가 물이 들어야 고둥 잡는다.)
- ㉡ 열두물 때 굴멍이 잡으레 간다.
(열두물 때 군소 잡으러 간다.)

㉠의 속담은 만심과 태만이 마침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촉박감 속에 칠칠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비아냥하고 있다. 해산물 채취의 수익을 올리려면 썰물 때는 잠을 자지 말고 해변에 가서 작업을 해야 할 터인데 그 때는 흐드러지게 잠을 자다가 밀물이 들어 滿潮가 돼서야 해산물을 채취할려니 먹자마잘 것 없는 고둥이나 잠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 속담은 무수기의 시기를 모르고 해산물을 채취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고 있다. 열두물은 바닷물이 잘 썩지 않는 시기다. 군소인 '굴멍이'를 잡으려면 물이 잘 썰 때라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바닷가에 나간다는 것은 바다에 대한 상식이 없는 무지에 해당한다.

<例示>

- 보말도 께기여.
(고동도 고기다.)
- 덕분 웃은 웨삼촌 대물찌에 죽언 강이 보말도 못 잡아 먹게 한다.
(은덕 없는 외삼촌 무수기에 죽어서 게 고동도 못 잡아 먹게 한다.)
- 물 들어사 품바리 잡나.
(물 들어야 고동 잡는다.)
- 삼월 보름 물찌엔 하우장 각씨 책갑 정 얼른다.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선비부인 책갑 : 문갑 지고 나든다.)
- 홀어멍은 물섭에 가도 지계문이 일곱이곡, 홀아방은 산섭에 가도 어육문이 하나인다.
(홀애미는 물가에 가도 지계문이 일곱이곡, 홀애비는 산기슭에 가도 억새문이 하나이다.)

③ 生態(10편) : 어로속담의 내용에서 생태가 어로를 통해 인간상태를 되비쳐 줬듯이 본 생태도 내용상 의도하는 바는 그와 다를 것이 없다. 단, 그 대상물이 어류 대신 패류, 갑류각(게), 극피류(성게), 연체류(군소)로서 10편으로 돼 있다.

- ㉠ 강이 보말도 집은 싣나.
(게와 고동도 집은 있다.)
- ㉡ 오뉴월엔 돌고망에 신 구쟁기 다 나온다.
(오뉴월에는 돌구멍에 있는 소라 다 나온다.)

㉠의 속담은 게와 고동도 다 제 살 집이 마련돼 있는데 어찌 사람이 되고 집이 없을 수 있겠느냐를 우회적으로 꼬집고 있다.

㉡의 속담은 소라의 생태를 말해주고 있다. 오뉴월이 되면 날씨가 무더워지므로 바닷속도 기온이 올라가서 돌구멍에 숨어 살던 소라들이 그 구멍 밖 돌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이 시기는 소라가 많이 잡힌다.

<例示>

- 구쟁기 똥누레 가불민 게드레기가 차지한다.
(소라 똥누러 가버리면 집게가 차지한다.)
- 싸는 물 시민 드는 물 싣나.
(싸는 물 있으면 드는 물 있다.)
- 스월 물쌀 칼 받아 든다.
(사월 물쌀 칼처럼 예리하게 차다.)
- 가시리 좋은 해 그슬 곡식 좋나.

(가사리 좋은 해 가을 곡식 좋다.)

- 히엄 잘 치는 놈 빠정 죽곡, 낭 잘 타는 놈 털어정 죽나.

(헤엄 잘 치는 놈 빠져서 죽고 나무 잘 타는 놈 떨어져서 죽는다.)

④ 氣象(3편) : 어로와 관계된 기상이 4편에 불과했듯이 본 잠수속담에서도 3편밖에 안된다. 그래서 어로와 잠수 그 어느 것에도 통용될 수 있는 기상관계의 해양속담 3편을 따로 분류했던 것을 여기서 例示부분에 함께 제시하고 이것에 대한 별도의 논급을 생략하겠다.

- ⑦ 서물 날 물 아랫바람 동으로 분다.

(서물 날 물 아랫바람 동쪽에서 분다.)

- ⑧ 바닷속 맑으면 날 조꼭, 바닷속 어둡으면 날 굳나.

(바닷속 맑으면 날 좋고, 바닷속 어두우면 날 굳속다.)

⑦의 속담은 대개 서물 때는 날씨가 음산하고 우천이 되거나 어쩌다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그 바람이 물이나 海上에만 부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으로도 부는데 동쪽에서부터 불어온다는 것이다. 물 속에서 작업을 해온 해녀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겪었던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⑧의 속담은 바닷속의 淸濁을 기준으로 기상관계를 예측하고 있다. 해녀들의 말에 의하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바닷 밑이 맑게 개일수록 날씨가 좋아지고 어둡고 흐릴수록 날씨의 변덕이 올 때가 많다고 한다.

<例示>

- 서물살이 비온다.

(서물에는 비 온다.)

- 조꼭에 비 안 오면 서물까지 지드린다.

(조꼭에 비 안 오면 서물까지 기다린다.)

- 날 우치젠 흐민 절 울린다.

(날씨 굳을러면 절 울린다.)

- 서물 날은 물 알로 바람 분다.

(서물 날은 물 아래로 바람 분다.)

3) 鹽業俗談의 內容

해양속담의 형성배경에서 製鹽에 대해 언급한 대로 사실상 제주도의 鹽業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환경여건과 기술상의 문제가 큰 난관이었다. 그런대로 1960년대 초까지는 두 곳이 보전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농토로 전환되었거나 그냥 버려진 채 그 흔적만 남아 있다.

例示의 속담을 보면 알지만 종달리(終達里)는 제주도에서 가장 으뜸가는 소금생산지였다. 그러나 이곳을 중심으로 채륙활동을 했지만 생각한 만큼 기대치에 밀도는 4편밖에 안되어 서운한 감이 없지 않다.

〈例示〉

- 소곰 먹은 쉼 물 쟈다.
(소곰 먹은 소 물 탐한다.)
- 종달리 소곰 시끈 암쇄 가름 돌듯 한다.
(종달리 소곰 실은 암소 마을 돌듯 한다.)
- 종달리 암첸 지 때 새끼도 못난다.
(종달리 암소 제 때에 새끼 못 낳는다.)
- 영등돌 초하루 사흘 불민 종달리 예펜 남국 들렁 춘춘다.
(2월달 초하루 사흘 좋으면 종달리 여자 죽것개 들고 춘춘다.)

(3) 主 題

잠어속담인 어로속담과 잠수속담에 대한 주제피악의 대상은 수량면에서는 농축속담에 다소 뒤지고 있지만 실제 생업면에서는 막상막하의 중추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류결과 21편의 어로속담의 주제는 敎示, 實利, 守分, 儉約으로 나타났고, 49편의 잠수속담의 주제는 實利, 敎示, 強韌, 儉約으로 집약할 수 있다.

1) 漁撈俗談의 主題

① 敎示(10편) : 주로 豫告의이고 告知的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어로속담의 주제로서는 상위인 10편이 이에 속한다.

- ㉠ 꿩기도 잡는 바둑에 가사 잡나.
(고기도 잡는 장소에 가야 잡는다.)
- ㉡ 돌 지기 반든 물, 돌 뜨기 반 든 물.
(탈 지기에 반 든 물, 달 뜨기에 반 든 물.)

㉠의 속담은 물고기를 낚는데 있어 바다면 다 고기가 낚아 올려지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 있다. 고기도 잡히는 장소가 있으니 그 곳을 제대로 찾아가서 낚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잡는다는 말의 의도와 같다.

㉡의 속담은 어부가 어선을 부릴 때 조류관계를 탐지하는 수법이다. 달이 질 무렵과 달이 뜰 무렵이면 반드시 썩던 물이 반은 들물의 상태로 바뀐다는 해양상식을 아리켜 주고

있다.

〈例示〉

- 벨 들어난 뒤 큰 켈기 문다.
(멸치 들었던 뒤 큰 고기 문다.)
- 어제기도 누릴 때 바사 안다.
(어부도 내릴 때 봐야 안다.)
- 복재기 사을 일긴 안다.
(어부 사흘 일기는 안다.)
- 조곰엔 켈기 안 문다.
(조금에는 고기 안 문다.)
- 삼스월엔 승어 눈 어둡다.
(삼사월에는 승어 눈 어둡다.)

② 實利(6편) : 생업자체가 먹고 살기 위한 作爲인 만큼 소득을 위한 실리성이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6편이 이에 해당하는데 생계와 직결되고 있다.

- ㉠ 초정월 우치민 복재기가 온다.
(초정월 날씨 궂으면 어부가 온다.)
- ㉡ 말랑 바르게 흥곡 큰 켈기랑 지 앞에 노라.
(말은 바르게 하고 큰 고기는 제 앞에 노라.)

㉠의 속담은 일년간의 어로활동에 영향을 주는 날씨의 징후에 대한 반응을 드러낸 것이다. 정월은 일년이 시작되는 달이다. 그래서 정월에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 그 해는 맑은 날보다 惡天候의 날씨가 더 많게 되므로 어획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니 생활에 닥칠 손실을 걱정하기 마련이다.

㉡의 속담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간에 실리를 위한 어물흥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크기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나지만 저울로 달아가며 파는 것이 아닌 한 눈 짐작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행위를 엿볼 수 있다.

〈例示〉

- 켈기 썰물 때 나끄지 말앙 들물 때 나끄라.
(고기는 썰물 때 낚지 말고 들물 낚아라.)
- 복재기 삼대민 조상을 물에 눅진다.
(어부 삼대면 조상을 물에 눅힌다.)

- ㅂ재기 사흘 세민 강알 굶어보다.
(어부 사흘 세면 사타구니 굶어본다.)
- 정월 초하룻날 불민 ㅂ재기 각씨 남죽 췌영 춤춘다.
(정월 초하룻날 맑으면 어부 아내 죽젓개 잡고 춤춘다.)

③守分(3편) : 어류의 생태를 통해 인간에게 수분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불과 3편에 지나지 않는다.

- 칠산바다 조기 튀난 제주바다 복쟁이 된다.
(칠산바다 조기 튀니 제주바다 복어 된다.)

이 속담은 ‘굴비’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 앞바다인 칠산바다에서 조기가 튀니 제주도 바다에서는 보잘 것 없는 복어가 된다고 하므로서 남이 하니 제 분수도 모르고 덩달아 하는 어리석음을 나무라고 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치판단도 달라져서 복어가 오히려 조기보다 더 비싼 고가품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지만 당시 복어는 알아주지 않는 하급어류로 취급됐다.

나머지 2편은 다음과 같다.

- 어시 켜 디 새끼 켜다.
(어미 똬 데 새끼 똬다.)
- 송어 튀난 복쟁이 튀단 원담에 배 걸령 죽나.
(송어 튀니 복어 튀다가 원담에 배 걸려서 죽는다.)

④ 儉約(2편) : 바로 앞의 守分에 관한 것이 3편에 불과했던 것처럼 이 검약을 주제로 한 것은 어로속담 21편 중 9.5%인 2편밖에 안되지만 검약은 제주도민의 劣惡한 생계여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던 생활 신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 북바리 좃 췌뚝(훤다.)
(북바리 좃 잡뚝 ‘훤다.’)
- ㉡ 바룻게긴 밥 도독눔.
(바닷고기는 밥 도독눔.)

㉠의 속담은 지나치게 융통성 없이 꼭 잠긴 통쇠처럼 구두쇠의 생리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도 구두쇠는 되어도 수전노는 되지 말라고 하지만 어렵게 모은 것을 헤프게 소비해 버릴 수 없었던 생활여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의 속담에서는 식량난에 허덕이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반찬이 있으면 아무래도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으므로 반찬의 재료가 되는 바닷고기를 밥 도둑놈으로 여겼었다. 식생활을 위한 양곡의 절약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소하고 절약하는 생활기풍은 자립의지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제주도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인 바 계속 이어져야 할 전통적 도민의식인 것이다.

2) 潛水俗談의 主題

① 實利(25편) : 실리는 생업속담 전반에 걸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로서 농사속담에서 27편 축산속담에서 23편으로 각각 首位主題를 이루고 있고, 본 잠수속담에서도 제일 많은 25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실속있는 삶의 추구가 없이는 원활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음을 체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 애기 짐광 메역 짐은 베여도 안내분다.

(애기 짐과 미역 짐은 무거워도 안 내버린다.)

㉡ 질쌘 흐는 사람은 흠어도 쓸 데 싹곡, 좀너 흠은인 쓰디 웃나.

(길쌘하는 사람은 흠어도 쓸 데 있고, 해너 흠은이는 쓸 데 없다.)

㉠의 속담이 보여주는 실리성은 부모로서 애기는 후대를 이을 귀한 자식이니 버릴 수 없고, 미역 또한 식생활의 자료로서 換穀 내지 換金海草類로서 중요하니 버릴 수가 없다.

㉡의 속담도 생업과 관계된 長短期 안목에서 보는 실리성을 읽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 늙으면 해너는 체력이 딸리고 運身이 불편하니 해산물 채취를 위해 바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소득이 끊긴다. 반면에 길쌘은 흠어도 웬만하면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장차를 위해서는 소득이 보장된 길쌘을 익혀두는 것이 낫다는 생업관마저 제시하고 있다.

<例示>

○ 구쟁기 똥누레 가불민 계드레기가 좃지훈다.

(소라 똥누러 가버리면 집계가 차지한다.)

○ 물찌 때 바룻가민 그냥 안 온다.

(무수기 때 바다에 가면 그냥 안 온다.)

○ 물질랑 쌀물에 흐곡 케기랑 들물에 나끄라.

(물질은 쌀물에 하고 고기는 들물에 낚아라.)

○ 물에 들 댄 지에집을 일람직이 가곡, 돌아올 댄 똥막사리 풀암직이 온다.

(물에 들 때는 기와집을 이룰 듯이 가고, 돌아올 댄 오막살이 팔 듯이 온다.)

○ 질쌘 밧 흠인인 죽언 보난 미녕 소중이가 아웁이곡, 좀너 흠인인 죽언 보난 일곱

애비아덜이 들르는 도곰수견이⁴⁰⁾ 하나이다.

(길쌈 밭 늪은이는 죽고 보니 무명소중이가 아홉이고, 해너 늪은이는 죽고 보니 일곱 애비아덜이 드는 도곰수견이 하나다.)

② 教示(15편) : 여기에 속하는 속담은 15편으로서 생업속담 어디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주로 속담의 교훈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豫報(告)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 바릇 좋은 해 용시 좋나.

(해산물 좋은 해 농사 좋다.)

㉡ 싸는 물 시민 드는 물 싯나.

(싸는 물이 있으면 드는 물이 있다.)

㉠의 속담은 豫報性的의 교시다. 선인들은 그 해 바다 농사 즉, 채취되는 해산물들이 풍족하고 살이 오르면 그에 따라 농사도 풍년이 든다고 보았다.

㉡의 속담은 事必歸正의 교시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해변에서 나타나는 무수기의 현상은 규칙적이어서 썰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들물이 있는 법이다. 이것은 무수기를 이용하는 어부와 잠수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흥망성쇠와 興盡悲來의 인간사에 비유되기도 한다.

<例示>

○ 칠월 물이 유월 물보단 딱신다.

(칠월 물이 유월 물보다 따습다.)

○ 서방질은 겨꾸로 해도 물질은 겨꾸로 못훈다.

(성방질은 겨꾸로 해도 물질은 겨꾸로 못한다.)

○ 유름 터엔 다음 물찌에도 싯나.

(으름 터에는 다음 무수기에도 있다.)

○ 와살⁴¹⁾엔 물 아래 들엉 감태 십어도 꼬차진다.

(와살에는 물 아래 들어가서 감태를 잡아도 끊긴다.)

○ 초여드렛 췌기엔 물찌가 살아오곡 수무날 췌기엔 물찌가 죽어간다.

(초여드레 저금에는 무수기가 살아오고 스무날 조금에는 무수기가 죽어간다.)

③ 強靱(8편) : 강인은 거의 잠수속담인 해너들의 생태와 생활상과 직결된다. 간추려보면 8편밖에 안되지만 그 강인한 기질 속에는 근실성도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40) 잠녀들이 물에 들 때 음부를 가리기 위해 입는 옷.

41) 다섯물에서 아홉물까지를 일컫는 말로 이때는 물살이 거세다.

그 주제를 勤實로 잡지 않은 것은 근실보다 더한 자립의지인 강인한 기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제주도 해녀이 불굴의 여인상을 내세우고 싶어서다. 아마 제주도 생업속담을 통해 본 두드러진 여인상을 꼽는다면 儉約과 強韌을 들지 않을 수 없다.

㉠ 즘년 애기 나뒹 사율이민 물에 든다.

(해녀는 애기 낳고 사흘이면 물에 든다.)

㉡ 한 조금날 물에 아홉 번 들엉 진채 아장 똥 싣다.

(한 조금날 물에 아홉 번 들었다가 진 채 앉아서 똥을 싣다.)

㉠의 속담은 Ⅱ장의 잠수속담의 형성배경에서 이미 제시하여 논급했으므로 재론하지 않겠지만, 다시 내세운 이유는 劣惡한 생활여건에 좌절하지 않고 粉骨碎身의 의지로 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생활력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의 속담은 좀 속된 면이 없지 않지만 그 근면성과 강인한 몸가짐은 그냥 목과할 수가 없다. 간만이 차이가 없는 조금 때에 해산물의 채취작업은 무수기를 이용한 때보다 헤엄쳐 오가기도 그렇고 수심이 더 깊어 어려움이 겹친다. 그런데도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을 왕복하면서 작업을 했다면 초인적 체력에 해당한다. 과장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바다에 몸을 내던졌다는 것은 忍辱의 고충이 따랐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例示>

○ 한물 아래 칼 반앙 든다.

(한물 아래 칼 받치고 든다.)

○ 물 우이 삼 년, 물 아래 삼 년.

(올 위에 삼년, 물 아래 삼년.)

○ 즘너 애긴 일퀘만에 것 맥인다.

(해녀 애기는 이레만에 밥 먹인다.)

○ 즘너 애긴 석 돌만에 아귀것 맥인다.

(해녀 애기는 석 달만에 썬 밥 먹인다.)

○ 즘너 애긴 사율이민 굴체에 녹저뒹 물에 든다.

(해녀 애기는 사흘이면 삼태기에 눕혀두고 물에 든다.)

④ 儉約 : 어로속담의 주제에서도 이 검약에 대한 것이 2편에 그쳤으나 본 잠수속담에서는 고작 1편에 머물고 있다. 80편의 제주도 잠어속담을 주제별로 분류한 5개의 주제항목 가운데 검약에 대한 주제의 것은 통틀어 겨우 3개로서 수량면에서는 극히 빈약하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생활사를 되돌아 볼 때 검약은 環海天險의 불우한 극한적 생계상황을 극복해

내는 비장한 생활신조로서 체질화되었던 傳統的 도민의식이므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말도 켜기여.

(고동도 고기다.)

‘보말’은 편의상 ‘고동’이라고 해석했지만 더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고동’뿐만 아니라 ‘다슬기’와 ‘우렁이’까지도 포함된 명칭이다. 영향학적으로 따지면 자양분이 높을 수가 있지만, 질보다 양을 우위에 두었던 당시의 통념으로는 腹足類인 고동이나 우렁이들은 등한시 되기 일쑤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기라고 함으로써 食用으로 가능한 것은 大小의 양을 가리지 않고 소중히 여겼던 생계관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와 대응해서 먹으나 마나한 보잘 것 없는 먹거리를 두고 나무랄 때 하는 비유로 ‘구메기 먹느니 코피랭이 다듬어 먹으라. (구메기 먹느니 코딱지 다듬어 먹으라.)’는 속담도 있고 보면 더 명료해진다.

IV. 結 言

本稿는 제주도 생업속담의 형성배경을 중심으로 1978년부터 1989년 1월까지 採錄활동을 통해 선별된 800여편의 제주도 속담 중 생업속담인 農畜俗談 131편과 潛漁俗談 80편을 합친 211편을 자료로 해서 이뤄졌다. 그 골격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形成背景 :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연적 측면과 생업적 측면이다.

자연적 측면이란 絕海孤島로서의 立地的 風土性과 惡天候에 따른 기후조건의 劣惡性을 말한다. 內陸地方과의 고립과 漂沒의 위기를 조성했고 瘠薄한 농토는 노고만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해서 자급자족의 여의치 못한 도민들에게 생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 거기에서 天災之變인 태풍·홍수·가뭄의 三災를 연중행사처럼 겪어야 했으니 흉년으로 饑饉에 허덕어야 했다.

생업적 측면이란 자연적 측면에서의 풍토적 여건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糊口之策을 위해 행해지는 생업활동의 자생적 당위성을 말한다. 우선 農畜業을 보면 척박과 악천후가 장애요인이 된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축산을 통해 생산성을 고양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地表水의 부족으로 밭농사가 주축이고, 牧養地로서의 최적지를 이루었지만, 苛斂誅求의 畜政에 시달리는 등 생활의 꾀박도 적지 않았다. 潛漁業은 입지적 여건을 최대로 활용한 것으로서 사방이 바다이므로 半農半漁의 생활권을 형성시켰다. 어로를 통한 큰 소득은 없었으나 생계에 적지 않게 보탬이 되었고 특히 海女들에 의한 潛水業은 제주도 여인의 강인한 생활력을

드러냄으로써 海洋이 바다농장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지역적 특수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수렵과 鹽業인데 製鹽所가 일곱 군데가 있었다고 하지만 염분 함유량이 적어 생산이 저조하므로 海南과 珍島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요약하면 제주도 생업속담의 형성배경은 자연적 측면에서의 孤立과 瘠薄, 天險과 三災의 열악한 환경여건과 생업적 측면에서의 農畜과 潛漁에서 체득된 自救的 生計觀이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2) 生業俗談의 樣相 : 농축속담(사냥 포람) 131편과 잠어속담 80편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생업별로 素材·內容·主題 분류에 역점을 두고 그 실상을 살폈다.

① 農畜俗談의 素材 : 농축속담은 농사속담과 축산속담의 합성어이므로 실제 소재분류는 구분해서 별도로 취급했다.

먼저 農事俗談의 소재를 살펴보면 생물·무생물·계절의 순으로 되고 있다. 생물에는 발작물인 곡물류와 잡초가 중심이 되고 있고 무생물은 밭이 11개로 단일 소재로는 전체 농사속담 중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곡물과 식품을 장만할 때 쓰는 用具를 비롯해서 食物인 밥과 돌도 돌보인다. 계절인 경우는 봄과 여름이, 절기로는 백중과 처서가, 월별은 6월과 7월이다. 소재로는 가축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도 四足類인 소, 말, 돼지, 개가 二足類인 닭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기타 그외의 것은 이들 가축의 부속물 들이다.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은 수렵에 관한 소재인데 꿩과 노루, 오소리가 그 전부다.

② 農畜俗談의 內容 : 소재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사와 축산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살폈다.

농사속담은 51편인데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농작물의 栽培에 관한 것이 23편, 收穫에 관한 것이 18편, 酷使에 관한 것이 5편, 叱責에 관한 것이 4편이다.

축산속담의 내용분류 대상은 64편인데 牧養에 관한 것이 28편, 品評에 관한 것이 22편, 活用に 관한 것이 12편이다. 농축속담은 아니지만 수렵속담이 16편 있는데, 노루사냥에 관한 것이 8편 꿩사냥에 관한 것이 7편, 오소리에 관한 것이 1편이었다.

③ 農畜俗談의 主題 : 내용적으로는 농사와 축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서도 그 의도하는 바 주제면에서 보면 생활전반에 걸친 도민의 生計觀과 인생관이 표출돼 있다.

'농사속담의 주제는 51편 중 실질적 이득에 해당하는 實利가 28편, 勤實에 관한 것이 14편, 알리고 깨우쳐 주는 教示에 관한 것이 9편이다. 축산속담의 주제는 64편 중 教示的인 것이 28편으로 많고 實利가 22편, 守分이 14편이다. 수렵속담 16편은 教示가 9편 實利가 7편으로 분류된다.

결국 농축속담의 주제는 거의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생활관을 조장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부추기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④ 潛漁俗談의 素材 : 잠어속담은 潛水俗談과 漁撈俗談의 합성어로서 이들에 대한 소재의 구분은 농축속담에서와 같이 어로와 잠수별로 나뉘 분류했다.

어로속담의 소재로 돋보이는 것은 魚類와 潮流에 관계된 것인데, 淡水魚는 없고 海魚뿐이며, 무수기·썰물·밀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잠어속담의 소재는 어로에서보다는 다채로워 貝類인 고동과 소라, 海草類인 미역, 甲殼類인 게, 棘皮類인 성게, 軟體類인 군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들 해산물의 채취에 필요한 用具를 비롯해서 생태와 관련시켜 月別의 등장은 일년 중 상반기에 해당하는 1월부터 7월까지, 조류에 관계된 것은 어로에서보다 더 倍加되고 있다.

⑤ 潛漁俗談의 內容: 어로와 잠수로 나누었는데, 어로속담 21편은 漁獲에 관한 내용이 10편, 어류와 그에 따른 生態에 관한 내용이 7편, 氣象에 관한 것이 4편이다. 잠수속담 49편인 경우는 해산물 획득에 따른 것이므로 潛嫂 곧 海女와 관계된 내용이 24편, 採取와 관계된 내용이 12편, 어류를 제외한 채취물의 生態에 관계된 내용이 10편, 氣象에 관계된 내용이 3편이다. 잠어속담은 아니지만 해양속담과 관계되기 때문에 4편의 鹽業에 대한 속담도 미약한 대로 生業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 바, 終達里라는 지역이 製鹽의 名所로 드러나고 있다.

⑥ 潛漁俗談의 主題: 농축속담의 주제가 자립의지를 부추겼던 것 이상으로 잠어속담의 주제도 불우한 생활여건에 도전했던 불굴의 강인성과 儉約의 기풍이 부각돼 있어 제주를 일궈온 선인들의 생계관과 인생관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傳統意識이 되고 있다.

漁撈俗談의 주제는 敎示의 것이 10편, 實利의 것이 6편, 守分의 것이 3편, 儉約의 것이 2편이고, 潛水俗談의 주제는 實利가 25편, 敎示가 15편, 強靱이 8편, 儉約은 고작 1편에 그치고 있지만, 꾀박한 생계여건을 극복해낸 생활신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과 같이 요약점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 속담이 갖는 독자성이다. 본 생업속담 211편을 중심으로 해서 보더라도 축산에 관한 것이 64편으로 농사속담 51편보다 많고 잠수속담 역시 21편의 어로속담보다 감절 이상 많은 49편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제주도의 입지적 풍토성과 직결된 생계관과 맞물려 돌아갔던 鄉土史의 증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海洋俗談인 潛嫂俗談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누차 언급했지만, 한국속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서 한국여성속담의 位相정립을 위해 놓쳐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 姜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0.
 姜相培, 「濟州島地域의 颱風에 관한 研究」 「論文集」 제18집, 濟州教育大學, 1988.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 6」, 1982.
 高在奐, 「濟州島의 女性俗談」 「국문학」 제86호, 국어국문학회, 1981.
 _____, 「濟州島俗談의 素材와 職能」, 「陶南學報」 제9집, 陶南學會, 1986.
 _____, 「濟州島俗談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6.
 金奉玉,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 金尙憲,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金錫翼, 「耽羅紀年」, 上同.
- 金 淨, 「濟州風土錄」, 上同.
- 金榮敦,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제5호,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6.
- 민족문화추진회, 「新增東國輿地勝覽」, 1980.
- 朴九秉, '韓國漁撈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68.
- 永信아카데미 韓國學研究所, 「朝鮮女俗考」— 李能和全集 第1輯 一, 1977.
- 李基文, 「俗談辭典」, 一潮閣, 1986.
- 李元鎮, '耽羅志'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林 悌, '南溟小乘' 「白胡集」.
- 濟州文化放送, 「耽羅錄」-朝鮮王朝實錄中-, 1986.
- 濟州道, 「濟州道誌」, 1982.
- 濟州道, 「제주통계연보」, 1988.
- 秦聖麒, 「濟州島俗談」第1·2輯, 프린트판, 1959.

<Summary>

A Study on Proverbs Related to Livelihood in Cheju-do

by Ko Chae-Hwa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 condition of the proverbs related to livelihood in Cheju-do by classifying the formation backgrounds, materials, contents and subjects of 211 proverbs.

This study results in the followings: the formation background at the view point of natural environment is caused by the unfavorable conditions of bad climate, isolation from the main land and frivolity in life. The formation background at the view point of livelihood is caused by sphere of life through half-agriculture and half-fishing in gear with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flourished in inland, and on the other hand, fishery and diving industry flourished in coast districts, so that not only the proverbs related to agriculture and livestock but also those related to fishery and diving came to be coined in Cheju-do.

The conditions of these proverbs are as follows.

1) Material aspect : The contents of agricultural proverbs are concerned with grains of farm products, agricultural instruments and foods. The contents of livestock proverbs are concerned with cows, horses, pigs and dogs called domestics cattle. Fishery proverbs are concerned with sea fish excluding freshwater fish, and ocean currents. Diving proverbs are more concerned with various sea creatures and ocean currents than fishery ones.

2) Content aspect : Of 51 agricultural proverbs, 23 proverbs are concerned with cultivation, 18 ones with harvesting, 5 ones with exploitation, and 4 ones with reproach. Of 64 livestock proverbs, 28 proverbs are concerned with bee-culture, 22 ones with the evaluation of livestock, and 12 ones with the practical use of livestock. Of 21 fishery proverbs, 10 proverbs are concerned with catching fish, 7 ones with the life mode of fish, and 4 ones with atmospheric phenomena. Of 49 diving proverbs, 24 ones are concerned with diving women, 12 ones with gathering sea-products, 10 ones with the life mode of diving women, and 3 ones with atmospheric phenomena.

3) Subject aspect : In the subjects of agricultural proverbs, 28 proverbs are concerned with actual profit, 14 ones with sincerity, and 9 ones with instruction. In the subject of livestock proverbs, 28 proverbs are concerned with instruction, 22 ones with actual profit, and 14 ones with keeping to one's status in life. In the subject of fishery proverbs, 10 proverbs are concerned with instruction, 6 ones with actual profit, 3 ones with keeping to one's status in life, and 2 ones with frugality. In the subject of longevity proverbs, 25 proverbs are concerned with actual profit, 15 ones with instruction, 8 ones with perseverance and 1 proverb with frugality.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lots of proverbs about livestock and diving in Cheju-do. Especially, diving proverbs stand unchallenged in the present Korean woman proverbs, remaining peculiar to Cheju-do.